

現代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에 對한 研究

韓昌榮 · 高性俊 · 高忠錫

〈目 次〉

- | | |
|--------------------------------|----------------|
| I 序：現代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의 克服問題 | IV 유로커뮤니즘 |
| II 마르크스-레닌主義이데올로기의 性格 | V 마르크스主義的 從屬理論 |
| III 金日成 主体思想 | VI 結論：批判的 評價 |

I 序：現代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이데올로기의 克服問題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전에 찾아 든 民族分斷의 歷史가 이제 30년을 훨씬 넘기고 40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南과 北으로 허리가 잘린 韓民族의 두 부분은 6·25라는 피비린내 나는 同族相殘의 悲劇을 겪었고 지금껏 南北韓 間의 敵意에 찬 대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分斷當時 태어난 아이가 이미 중년에 들어선 이 時点에서 우리는 民族의 主体的 意志와 무관하게 決定·展開된 歷史의 資意에 스스로를 던져 버리기 보다는, 民族史가 진행해 나가야 할 規範의 制度를 모색하여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未來를 신뢰하고 항상 앞서서 準備하고 努力해 온 民族은 인류역사상 많은 奇蹟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統一이라는 民族至上課題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本稿에서는 冷戰時代의 이데올로기 對決의 產物인 우리의 分斷狀況을 克服하기 위하여 時急한 일이 그 論理的 前提인 이데올로기의 克服으로 보고 이 問題의 論議를 시도하고자 한다.

人類歷史過程속에서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理性을 마비시키는 거것 偶像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人間과 時代의 未來를 밝혀주는 實踐的 眞理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간 統一을 沮害하며 우리의 政治的 思惟를 어지럽혔던 이데올로기의 迷妄은 무엇인가? 統一을 위하여 우리가 克服해야 할 이데올로기의 名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革命的 마르크스主義이데올로기다. 그와

※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는 문 집

의 대면없이 우리 民族의 宿願인 統一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근간이 되는 現代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관심은 分斷이라는 우리의 狀況認識에서 비롯되며 또 이는 狀況克服을 위한 意志의 表現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의 役割이나 機能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어 왔다. 이데올로기를 인간의 生活를 調整하고 規制하는 <理念들의 体系>로 정의하는 롬베르그(Lumberg)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生活와 함께 역사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속에 깊이 침잠하여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이해 관계가 서로 相衝될 수 있고 多樣한 性格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력과 일체감을 불러일으켜 주며, 변혁을 유도하기도 하며,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社會의 統合과 團結 그리고 正體의 確立을 위해 실천적 眞理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도 硬和되면 教條와 幻想, 거짓 神話와 虛偽意識으로 바뀌어 人間에게 劃一性과 強制性 그리고 閉鎖性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硬化된 이데올로기는 認識主体로서의 인간에게 先入觀으로 作用해서 眞實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獨斷의 教條로서 작용해서 創意的인 努力을 억제하게 되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試圖하는 인간에게서는 발전을 위해서 必須的으로 要請되는 開放性을 빼앗아 버린다.²⁾ 따라서 인간의 삶을 지도하기 보다는 그를 얽매는 왜곡된 理念體系로 부터 벗어나 眞實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變化된 環境의 挑戰에 창의적으로 對應하게 하고 끊임없는 自己成長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 克服의 문제라고 본다.

硬化된 이데올로기로서 代表的인 現代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이데올로기가 典型이 되는 革命的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들이다. 古典의 마르크스主義가 러시아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에 있어 커다란 條正이 가하여 지고 變質되어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곧 現代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中心的인 核心이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國家마다 다른 歷史的 現實에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로서 變用되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亞流와 分裂現象이 작금의 현실이다.³⁾

예를 든다면 유로커뮤니즘, 네오마르크시즘, 마르크스主義的 從屬理論, 그리고 金日成主体思想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이데올로기에 있어 中心的인 核心인 마르크스-레닌主義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現代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이데올로기들을 접근함에 있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知的 批判能力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變形된 性格에 대한 理解도 중요하리라 본다.

1)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 (서울:한길사, 1982), p.447~449.

2) 李奎浩,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意義”, 이데올로기批判教育責任教授研修會發表(82. 8)

3) 金永俊, 革命이데올로기와 葛藤(서울:亞細亞文化社, 1982), p.417.

따라서 이러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本研究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이데올로기의 歷史的 흐름과 그의 內的인 葛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갖는 虛構性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一助가 되기 위해 이루어 진다.

II 마르크스-레닌主義이데올로기의 性格

1.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시즘-레닌이즘

近代政治思想이 政治過程에서 용솨음치는 時代를 이데올로기의 時代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단지 美國革命과 프랑스革命, 그리고 産業革命과 같은 歷史的 革命이 계속하여 일어난 時代라는 데서 그런것 만이 아니고 政治思想은 大衆의 參與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새로운 時代的 性格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르조아의 대두로 特徵지어진 近代政治는 급기야는 大衆의 政治라는 性格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추세였다. 權力의 正統性과 權力의 造成과 維持에 있어 大衆의 支持와 힘이 바탕이 됨으로서 결국 大衆이 近代社會의 가장 중요한 權力資源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狀況속에서 일관된 政治規範의 처방이나 政治体制의 考安이라는 전통적 기능을 가지고 있던 政治思想이 權力의 資源이된 大衆의 政治參與를 前提하고 그들에게 政治的 價値觀과 行動樣式의 指針을 마련해주는 人爲的 規範과 상징의 체계라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기능을 갖게 된 近代政治思想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近代的 政治 이데올로기는 時代的 產物이다. 한 시대에 당면한 여러가지 社會的 不條理에서 아픔을 느끼는 人間들이 그 아픔이 없는 狀態를 理想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아픔들을 가져오는 社會不條理를 제기하는 社會改革을 추진하려 할 때 형성되는 체계적 抵抗意志가 곧 政治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政治이데올로기는 관심의 焦點, 改革對象, 改革方向, 推進主体 등 모든 점에서 그 時代의 社會象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⁵⁾ 예를 들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마르크시즘은 18世紀 後半 初期資本主義体制에 대한 抵抗에서 그리고 헤닌이즘은 19世紀 末의 帝政러시아의 專制体制에 대한 抵抗에서 명백한 鬪爭對象과 改革對象体制을 가지고 나타난 革命的 性格의 정치이데올로기들이었다.⁵⁾

近代政治思想으로서 革命的 政治이데올로기는 대체로 세가지 特性을 지닌 것 같다. 첫째로,

4) 李洪九譯, F. M. 왓킨스, 이데올로기의 時代(서울: 을유문화사, 1982), p. 14.

5) 李相禹, “政治理念, 社會變化와 統一問題”, 韓國共產黨研究協議會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2), p. 295.

革命的 政治이데올로기는 그것이 自由主義이던 共產主義이던 다같이 과도한 樂觀主義 또는 유토피아적 要素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한 유토피아적 傾向은 啓蒙思想이 마련한 人間理性에 대한 믿음과 科學의 發展이 가져온 進歩에 대한 自信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現狀에 대하여 悲觀的 診斷을 내리고 새로운 體制를 만들려는 目的에 의한 것으로 未來에 대한 約束만이 政治的 參與의 動機를 마련하여 준다는 政治的 判斷의 직접적 결과이다.

둘째로 革命的 政治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한 진파를 위하여 그 內容을 單純化하여 특히 友·敵의 區別을 극도로 단순화하는 傾向이 짙다. 이것은 복잡하고 섬세하게 理論化한 政治規範은 大衆의 行動을 특징한 方向으로 이끄는 데는 적합치 못하다는 상식적인 理由와 強度가 높은 政治意識이나 行動은 선명하게 드러난 敵이나 규탄의 對象이 있을 때 쉽사리 유발될 수 있다는 社會心理的 理由가 複合的으로 고려된 結果일 것이다.⁶⁾

세째로 이데올로기는 意識的으로 體系化된 政治思想이기 때문에 언제나 엘리트에 의하여만 들어지고 그 傳播의 對象은 大衆으로 삼고 있으므로 엘리트에 의한 大衆의 操作이란 一面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特徵들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지나친 單純化와 人爲性的인 것이 革命이데올로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強點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기대를 자아냄으로써 그러한 유토피아적 理論은 어쩔 수 없는 실망을 가져왔다.

2. 마르크시즘의 起源

오늘날 일반적으로 마르크시즘-레닌이즘(Marxism-Leninism)이라고 부르는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와 레닌(Vladimir Ilyich Ulyanov: Lenin, 1870-1924)의 理論과 指針을 그 核心으로 하고 있다. 무릇, 어떠한 思想家나 革命家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들이 살았던 時代의 아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理論과 실천도 時代性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르크스의 思想과 理論은 유럽이라는 특수한 地域과 19世紀라는 특수한 時代를 背景으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럽의 思想的 傳統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라고 부르는 이념적 要素를 갖고 있는 政治思想이 언제나 잠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잠재적인 政治思想은 프랑스大革命을 전후하여 人間의 平等이란 口號로 표면화 하였다. 당시 自由主義者들은 平等을 身分의 差

6) 李洪九·金榮國外, 新政治學概論(서울: 서울大出版部, 1981), pp.509~510.

別로 부터 해방된 法的平等으로 이해 했으나 진정한 平等은 財産이나 富의 平等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비르(François Noel Babeuf)등을 바로 近代共產主義의 初期思想家들이다. 私有財産 制度의 廢止와 經濟的 平等을 위한 革命的 獨裁를 기도한 그들의 입장은 계속하여 近代共產主義의 核心이 되어 왔다.⁷⁾

18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들어서서 英國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들에선 産業 革命이 급속히 진행되어 生産의 증대와 소비물자의 質과 量의 진진 그리고 이에 따른 國家의 生産力의 증가와 富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産業革命은 적지 않은 社會的 및 經濟的 問題點을 수반하였다. 生産의 機械化는 勞動賃金の 低下를 초래하였고 都市를 中心으로 건설되는 工場은 低賃金에 허덕이는 勞動人口를 都市로 집중시켰다. 이들은 都市에 추하고 비위생적인 빈민굴을 이루어 살았고 이들이 工場勞動에서 기대될 수 있는 生活의 보장은 예전의 手工業時代에 비해서 훨씬 저하되었다. 순전히 勞動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토지없는 사람들은 노임이 적음에도 오히려 항상 解雇당 할 걱정속에서 지내야 할 실정이었다.⁸⁾ 婦女 및 少年勞動者들이 보다 더 운순하고 양심적이었으므로 환영받았으며 그 결과 家長인 勞動者는 失業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그러한 工業化와 都市化는 産業革命이 실질적인 富가 전례없는 비율로 증대되던 동시에 貧富의 격차도 한층 더 크게 하였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經濟的 不平等의 深化는 새롭고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었다.

이 심각한 不平等의 문제는 18세기에 그 전성기를 이룬 古典의 自由主義에 대한 믿음의 喪失을 가져왔다.⁹⁾ 이러한 심각한 社會 및 經濟問題가 自由放任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되리라고 믿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했다. 더군다나 經濟的 不平等이 自由放任에 입각한 自由市場制度의 피치못할 결과인 듯이 생각되자 平等의 주창자들은 자연히 自由市場 그 자체가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른바 「空想的 社會主義者들(Utopian Socialists)」이다. 생시몽(Henri de Saint-Simon), 오웬(Robert Owen), 푸리에(François Marie Chalres Fourier)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주도 社會環境의 改革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러셀(Bertrand Russell)은 서구에서 政治的 權力과 결합된 社會主義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⁰⁾ 한마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존한 1830~90년대는 産業革命과 프랑스革命의 여파로 말미암아 유럽이 격랑속에서 흔들리던 격변의 時代였다. 絕對主義主權의 흥망과 성쇠, 産業革命의 파급에 뒤따르는 經濟制度의 교체와 社會의 變動, 自由主

7) 金學俊, 러시아革命史(서울: 문학과 지성사)1979, pp.60~61.

8) 車河淳, 西洋史總論(서울: 탐구당, 1976), p.449.

9) 李洪九譯, op. cit., p.103.

10) 金學俊, op. cit., p.61.

義, 民族主義, 無政府主義, 社會主義思想의 대두, 국가간의 戰爭, 階級적 갈등 그리고 內亂, 부르조아社會의 定着과 勞動階級의 形成, 資本主義의 세계적 팽창과 植民地에 대한 壓迫 등 극적인 變化가 중첩, 교착하면서 거대한 전환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時代다.

또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치 못하는 민감한 思想家와 壓迫에 시달리는 大衆들이 새로운 社會建設의 原理와 方法을 탐색하던 고민의 시대였다.¹¹⁾ 마르크스와 Engels는 처음에는 急進的 社會主義者로서 普魯西亞의 封建的 支配階級에 항거했고 그 후에는 共產主義者로서 英·獨·佛의 초기 자본주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마르크스와 Engels는 그들 이전의 社會主義가 당시 社會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약속을 제공할 수 없는, 이상 대중을 설득하여 새로운 革命的 運動에 그들을 가담시키겠다는 희망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信金을 올릴만한 社會主義 理想을 토대를 형성했다.¹²⁾ 그리고는 스스로의 社會主義를 진정한 「科學的」理論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產業革命이 초래한 勞動者의 빈곤을 스스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中産層出身의 知識人으로서 勞動者가 당면한 不平等의 문제를 理論的 次元에서 說明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는 現實의 精確한 分析으로부터 出發한 것이 아니라 人爲的으로 구축한 抽象的 理論體系를 토대로 전개되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科學的 社會主義」理論의 骨格은 무엇인가?

3. 마르크시즘의 內容과 批判

가) 辨證法的 唯物論

歷史發展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해답이 있어왔다. 어떤 이는 神의 意志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文化의 循環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헤겔(Georg W, Friedrich Hegel : 1770-1831)은 世界精神이라고 보았다.¹³⁾ 여기에 대해 마르크스는 經濟的 要因 다시말해서 社會의 物質的 生産樣式의 發展法則에서 찾았다. 그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物質的 生産이며 法律的 政治的 諸關係와 理念, 藝術, 哲學, 宗教 등은 파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後者들은 자율적이지 못하며 어느 주어진 社會의 物質的 條件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物質的 生産樣式의 發展原理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그것을 변증법에서 찾았다. 辨證法에 있어서는 發展은 肯定—否定—否定的 否定 過程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이를테면

11) 梁好民, 共產主義現實과 理論批判全書(서울: 內外文化社, 1964), p.57.

12) 李洪九譯, op. cit., p.107.

13) 梁好民, “마르크스主義의 背景과 根源” 고려大 亞細亞問題研究所編, 마르크스-레닌主義(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p.29.

한 思想(肯定)이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思想(否定)이 나오고 동시에 兩立할 수 없는 (모순된) 이 두 思想은 서로 대립하여 다투다가 결국은 보다 완전한 第三의 思想(否定的 否定)에서 종합된다. 「肯定」과 「否定」이 모순을 극복하고 「否定的 否定」으로 종합되는 과정을 止揚이라고 부르는데 이 「否定的 否定」에 대립하는 「否定」이 다시 出現하여 前者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思想은 부단히 발전한다. 마르크스는 現實의 변혁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辨證法을 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哲學的 武器로 보고 이것을 섭취하여 자기의 思想體系의 초석으로 삼았다.¹⁴⁾ 그리하여 모든 社會는 辨證法的 過程이 內部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社會는 內的反對를 자극하거나 만들어 내며 이것이 새로 社會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社會는 辨證法的 唯物論의 원칙을 따라 興起, 發展, 消滅 한다는 것이다.¹⁵⁾

나) 唯物史觀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는 현실에 있어서 인간의 本質은 그가 맺는 社會關係에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러면 人間은 왜 社會關係를 맺는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慾望을 채우기 위한 때문이요 그리고 慾望中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生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하지 않으면 안될 物質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그는 본다. 여기서 〈人間의 제일의 歷史的 행위는 그의 慾望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手段의 생산, 그의 物質的 生活 그것의 生産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政治的 精神的 活動등 인간의 일체의 활동은 이 토대위에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人間이 그의 物質的 生産과 物質的 關係를 발전시킬 때는 그 자신의 思想 및 思想의 產物도 변화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볼 때 마르크스가 인간의 社會關係니 物質的 關係니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生活資料의 획득을 둘러싸고 맺어진 生産關係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生産力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것이다. 즉 일정한 生産關係는 일정한 生産力에 對應하여 맺어지는 것이며 生産力이 바뀔 때는 生産關係도 바뀐다.¹⁶⁾ 〈맺들은 封建領主를 가진 社會를 보이고 증기 製粉機는 産業資本家를 가진 社會를 보일 것이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科學이나 技術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産業力이 나타난다고 해서 갑자기 全 生産關係가 일시에 이에 적응하도록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새로운 生産力과 낡은 生産關係사이에는 조만간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 일어난다. 이 모순은 人間關係로 이전된다. 즉 낡은 生産關係(經濟制度)에서 이익을 보던 계급, 支配階級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 입장에 서게 되고 새로운 生産力에 대응하는 새로운 生産關係의 출현에 의하여 利益을 볼 수 있는 階級, 被支配階級은 支配階級과 대립하게

14) Ibid., p. 41.

15) 金學俊, 蘇聯政治論(서울: 一志社, 1976), p. 57.

16) 金得柱, 이데올로기論(서울: 博英社, 1982), p. 144.

된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이 격화하면 할수록 兩階級의 투쟁은 尖銳化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生産關係 즉 새로운 經濟制度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 公式를 자본주의사회에다 적용할 때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은 生産力의 발전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결국 社會革命을 유발하고 드디어는 資本主義制度는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⁷⁾

다) 資本主義社會와 프롤레타리아革命

마르크스는 唯物史觀과 辨證法的 唯物論에 의거하여 資本主義社會의 必滅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의 필연적 到來를 확증하려 했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는 노동자는 그가 창조하는 모든 價値에 대한 보상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19세기에서 노동자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 6時間 일하면 충분하지만 資本家は 12時間의 노동착취에서 생긴 剩餘價値를 소유하며 그것으로 이윤과 자본을 얻는다. 資本主義下에서는 支配階級인 부르조아들의 福利를 위하여 노동자들은 制度和 組織을 통해 노동의 결실을 빼앗긴다. 그들은 勞動을 팔아도 굶지 않을 정도의 勞賃을 받을 뿐이다. 그리하여 資本主義制度下에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더욱 더 빈곤해지고 더욱 더 착취당하게 된다.

한편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할수록 生産手段은 競爭이라는 資本主義法則에 의해 점점 소수자본가에게 集中 또는 獨占된다. 더우기 人口의 대다수를 점하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침체 및 공황이라는 經濟的 危機가 온다.¹⁸⁾ 그리고 이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反抗도 증대되면서 이들은 階級意識으로 覺醒, 團結하게 되며 資本主義를 뒤집어엎고 「社會主義로의 移行」을 시도하려 한다. 그러나 소수의 支配階級은 기왕 가지고 있는 武力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에 反抗하거나 방해공작을 편다.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는 暴力革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르크스는 「暴力은……새로운 社會를 낳는 낡은 社會의 助産婦」라고 했던 것이다.¹⁹⁾

다시말해서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를 資本主義 社會內에서의 辨證法的 對立 勢力으로 파악했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서로 대립하는 이 두 階級은 그대로 대립을 은폐하면서 資本主義內에서 영구히 共存할 수는 없으며 드디어는 투쟁이 격화하여 낡은 私有財產制度가 깨지고 새로운 社會가 창조되면서 이 모순은 극복된다는 革命理論을 전개했다.

17) 金玟河, 金善亨, 現代社會와 이해올르기(서울: 大旺社, 1982), p.41.

18) 車河淳, op. cit., p.462.

19) Karl Marx, Das Kapital, Chap., 24.

라) 國家消滅說

마르크스는 어느 한 社會에 있어서 그 社會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은 반드시 그에 따른 利益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낳으며 이것이 社會를 여러 대립하는 계급으로 분열시키는데, 지배적인 生産樣式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政府와 法律)을 만들어 非支配階級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바꿔 말해서 國家란 葛藤的 階級狀況이 革命的 暴力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經濟的 支配階級의 權益을 지키는 强者의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엥겔스의 지적에 따르면 古代國家는 奴隸의 압제를 위한 奴隸所有者들의 國家들이었고 封建國家는 農民과 農奴의 압제를 위한 貴族의 機關이며 近代 代議制國家는 賃金勞動의 착취를 위한 資本家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그러기에 지배계급은 바로 이 國家를 장악하고 있어서 결코 「歷史의 舞台에서 제발로 걸어나가지 않으며」 革命에 의해서만 타도된다는 것이다.

그는 國家는 본질적으로 階級產物이라는 점에서 惡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私有財產의 폐기와 共同体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意味하는 社會主義體制에서는 經濟的 不平等을 바탕으로 한 社會階級 그 자체가 사라지며 따라서 階級없는 社會에서는 國家도 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 마르크시즘의 基本的 弱點과 矛盾

資本主義經濟의 운동법칙과 資本主義必滅論 그리고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必然論을 주장한 「資本論」 제1권(1867년)의 출판 후 곧 이른바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불리는 마르크시즘이 곧 그 理論의 弱點과 矛盾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唯物史觀에 의하면 역사상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辨證法的 唯物論 즉 계급투쟁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배적인 歷史法則이 共產主義 社會가 수립된 후에는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모순의 論理이다.²¹⁾

둘째로 마르크스의 科學的 社會主義라는 용어에는 「非科學的」인 유토피아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의 科學的 社會主義라는 것은 「科學的」理論의 필수조건인 설명과 평가의 분리, 예측과 처방의 분리를 지키지 못했다. 예컨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到來는 역사법칙에 의해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인지 또는 그러한 獨裁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처방인지를 마르크스는 분명히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科學的」이라는 환상

20) 梁好民, op. cit., pp.214~250.

21) 車河淳, op. cit., pp.509~511.

을 만들어냈지만 學術的 차원에서는 「非科學的」理論임을 드러냈다.²²⁾

세계로 마르크스는 모든 역사적 사건을 經濟라는 單一原因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적 因果關係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모든 社會的, 知的現象을 오로지 經濟와 階級鬭爭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理論은 政治的이나 心理的 또는 理念的 要因의 중요성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시즘 자체가 歷史와 社會的 變化에 관한 하나의 思想으로서 조만간에 커다란 知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歷史的 힘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上의 弱點과 矛盾이외에도 마르크스의 科學的 社會主義는 실제와 맞지 않는 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共產黨宣言」에서 예언한 프롤레타리아의 초국가적인 연합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資本主義 國家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국가의 열렬한 支持者 또는 자기가 소속된 각종 社會集團의 멤버라고 자처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들 스스로가 프롤레타리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는 하나의 神話的 存在라고 볼 수 있다.²²⁾

다음으로 비록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여러 계층의 大衆運動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대중이 더욱 빈곤해지고 飢餓線上에서 방황할 것이며 급기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革命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이른바 「科學的」 예측은 적중되지 못했다. 그대신 19세기의 많은 資本主義國家의 노동자들의 經濟的인 처지는 보다 더 효율적인 生産手段이 나와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 냄에 따라서 향상되어 갔다. 또한 改革的 立法이나 노동조합운동이 산업노임을 인상하도록 하고 노동조건을 改善시킴에 따라 점차 더 많은 數의 勞動者들은 「中產層」의 생활수준에 달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가 被擄取階級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社會에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기에 英國이나 美國 등의 최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革命이나 또는 革命의 위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共產革命은 오히려 工業化가 가장 낮은 후진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던 것이다.²⁴⁾

그리고 지난 1980~81년의 폴란드 事態는 우리에게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폴란드 事態가 함축하는 진정한 意味는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性格을 지녔다는 점이며 그 투쟁 對象이 부르조아 政權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던 黨과 國家官僚體制였다는 것이다. 러시아革命이 프롤레타리아 이름을 빌렸을 뿐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때 共產獨裁에 항거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바로 共產社會內部에서 분출했다는 事實은 「마르크스의 神話」가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뜻한다.

22) 李洪九, op. cit., pp. 426~429.

23) 梁好民, 마르크스-레닌主義, op. cit., p. 67.

24) 金學俊, 러시아革命史, op. cit., p. 64.

4. 레닌主義의 內容과 批判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은 러시아 볼셰비키黨을 主導, 人類歷史上 최초의 共產主義革命이라는 暴力的 方法을 통한 共產化를 이룩한 革命家이자, 마르크스의 理論을 러시아의 革命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크게 수정하고 확대한 共產主義 戰略戰術家로 現代共產主義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레닌이 러시아를 共產化시키는 과정에서 수립한 갖가지 革命的 戰略과 戰術, 공산당의 운영원칙, 世界戰略 등을 통틀어 이를 「레닌主義」라고 부르고 있다.²⁵⁾

한마디로 「레닌主義」는 東方的 專制的 뿌리깊은 傳統속에 묻혀, 農民이 全人口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資本主義 以前의 後進의 러시아社會에서 배태된 革命理論으로 러시아의 특수한 歷史的 狀況의 產物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가 人類최초의 共產革命의 主導者 이기에 그의 革命理論은 그후 共產世界에서는 번복될 수 없는 하나의 指針으로서의 機能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가. 帝國主義理論

古典의 마르크스理論은 資本主義 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왜 불가피한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資本主義는 마르크스의 分析이 제시한 특징과 경향의 상당한 부분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실증했다. 아울러 적어도 전형적인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²⁷⁾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예언한 대로 가장 先進의인 資本主義國家에서 왜 革命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적용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의 냉엄한 사실을 해명하자는 것이었다.

레닌은 1916年 봄 망명지 스위스에서 출간한 小冊子 「帝國主義：資本主義의 最高段階 (Imperialism :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그의 주장을 理論化하였다. 그는 우선 資本主義를 發展의 段階에 따라 둘로 나누었다. 첫째가 自由競爭이 지배하던 獨占 이전의 資本主義인데 마르크스時代의 資本主義가 이에 해당한다. 레닌은 1860~1870年 사이가 自由

25) Richard T. De George, Patterns of Soviet Thought(Ann Arbor Paperback: The Univ. of Michigan, 1966), p.7.

26) 安秉永, “마르크스「資本論」의 종언”, 新東亞, '82年 4月號, pp.230—231.

27) 李仁浩, “러시아革命과 이데올로기의 충격”, 盧明楨, 李光周編, 二十世紀現代史(서울: 청람, 1981), p.65.

競爭의 資本主義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았다.²⁸⁾ 둘째가 獨占資本主義로서 레닌時代의 資本主義가 여기에 해당된다. 레닌은 이 독점자본주의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완성되었다는데 이것이 곧 帝國主義이며 資本主義의 최후의 단계라고 규정했다. 레닌에 의하면 獨占資本主義時代는 카르텔에 의한 獨占이 지배적인데 카르텔은 販賣, 代金決裁方法 등을 서로 정하고 市場의 配分, 生産量割當, 價格의 決定, 利潤의 配分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²⁹⁾ 資本家나 技術者 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카르텔에 의해 統制되고 동원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産業資本家들에 의해 所有 支配되고 있어서 이 결과 원자재 生産者들은 착취당할 수 밖에 없고 産業資本家들은 여기서 막대한 利潤을 얻어낼 수 있었다. 아무튼 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獨占이야말로 “資本主義 發展過程의 最後段階”라 할 수 있다.

獨占資本主義時代에는 상품수출은 물론 資本이 수출된다. 資本家の 獨占利潤이 극한에 달하게 되면 이 資本은 필연적으로 投資할 것을 찾아 外國으로 수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출된 곳에 資本主義를 발전시킨다. 자본수출에서는 항상 수출국이 유리하다. 특히 資本輸入國에 대해 資本輸出國 商品을 사게 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도 自由競爭은 사라지고 資本輸出國이 獨占支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치 國內市場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다시 國際的 카르텔이 형성되어 市場分割 勢力圈 策定 등이 일어 나게 되며 이와 같은 超카르텔(Super Cartel)性으로 資本主義는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各國政府는 정치적으로 自國의 資本主義가 국제시장에서 시장확장, 시장독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여기서 각국은 植民地 또는 準植民地에 해당하는 이른바 勢力圈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帝國主義다.³⁰⁾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帝國主義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植民可能地域이 일정하기 때문에 植民地 再分割만이 特定資本主義國家의 帝國主義化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 주는 方法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식민지 재분할을 위해 필연적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야 만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그의 「帝國主義 戰爭論」이다.

그는 아울러 서구의 先進資本主義 社會에서 革命이 일어 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상층노동자들이 植民地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 제국주의자에게 매수되어 機會主義者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資本主義社會의 젖줄이며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투쟁을 둔화시키는 장본인인 植民地의 反帝民族解放鬪爭이 제국주의체제를 약화시키고 그 밑의 勞動階級으로 하여금 革命運動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28) 金學俊, 소련의 外交論序說(서울: 서울大出版部, 1981), pp.67~69.

29) 李相禹, “帝國主義戰爭理論”, 國際關係理論(서울: 박영사, 1979), p.119

30) Ibid., p.120.

그는 이 分析위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은 고도로 발달한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戰線의 연쇄가 가장 「약한 고리」에서 일어 난다고 주장하며 바로 경제적으로 後進國이나 식민지가 없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³¹⁾

나. 黨 理 論

黨理論은 레닌이 러시아 社會民主黨 第二次 당대회를 앞둔 1902年 3月 스위스에서 발표한 「무엇을 해야하나(What is to be done?)」라는 소책자에서 개진된 바 있다.³²⁾ 레닌의 黨概念의 中心點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몇가지 黨에 관한 原則들은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共產黨의 운명, 조직, 形態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中心的인 그의 黨論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닌은 黨(共產黨)은 前衛黨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前衛黨(Vanguard partg)이라는 것은 黨이 계급의 진위이어야 하며 따라서 이 黨이 모든 혁명세력의 실질적인 주역이 되어야 함은 물론 一般大衆의 革命意識도 이를 黨이 앞장서서 유도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³³⁾

둘째 黨의 組織, 運營原則의 問題이다. 레닌은 黨의 組織原則에 있어서 職業的인 小數革命家에 의한 秘密閉鎖組織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黨의 組織에 있어서 黨은 그 규모에 있어서 방대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加入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開放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은 핵심 엘리트 또는 직업혁명가로 구성되는, 따라서 大衆政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엄격한 규율을 가진 군대식 노선의 「小數 陰謀者」의 革命政黨論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레닌은 黨의 運營원칙, 즉 指導原理로 「民主的 中央集權主義(democratic centralism)」라는 것을 들고 나섰다. 이는 한 마디로 黨의 전체적인 조직구조나 運營원칙은 上向式이 아니라 下向式 즉 밑으로부터의 意思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一方的인 意思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며 黨의 中心 또한 黨員이 아니라 黨의 中心部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黨의 運營도 일단 하나의 決定이 내려지면 여기에 대한 一切의 시시비비는 存在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評 價

레닌의 黨觀은 한마디로 民主的이고 開放的이며 複數競爭的인 民主政黨의 그것과는 판이한

31) 丁世鉉,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 自由아카데미전, 比較共產主義(서울: 自由 아카데미, 1978), p. 172.

32) 李仁浩, op. cit., p. 70.

33) 金甲喆外, 共產主義와 共產黨(서울: 문우사, 1981), pp. 77~80.

소규모의 中央集權力이며 직업적이며 음모적인 組織체로서의 共産黨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黨의 운영원칙으로 들고 나온 이른바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도 全体主義式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는 여러 사람이 모여 무엇이 옳은가를 표결하자는 방법이다. 이 논리에서는 다수로 결정된 것은 眞이고 따라서 소수주장은 僞가되어 틀린 생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반드시 옳을까. 아무튼 이러한 발상은 劃一化의 억지와 직결되어 있다. 투표에서 승리한 者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專制의 논리를 다루는 견해를 인정하는 確實적 專橫이 생겨나는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의 생명은 가치의 相對性에 있다. 다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절대진리를 알겠느냐는 겸손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같이 틀릴 수도, 그리고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民主的 사고다. 민주주의에서도 투표를 행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眞理發見의 방법이라는 의미가 없다. 다만 서로 옳을 수 있는 異見 즉 다른 견해의 분포상황을 파악하여 타협의 전제를 삼자는 것뿐이다.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자는 것 뿐이다.

결국 레닌은 직업적인 革命家의 黨, 民主集中主義의 黨運營原則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共産革命을 主導하고 民衆들을 선동하고 또한 革命後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하고 영구적인 一黨獨裁體制를 획책하려 하는 것이 레닌에 의하여 設計되고 있는 黨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에서 지적되는 점은 그 理論的 問題點과 현실과의 乖離다. 레닌은 帝國主義를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生理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帝國主義는 자본주의시대 훨씬 以前의 古代의 帝國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帝國主義는 힘으로 남을 지배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일반적인 人間屬性에서 비롯된 것이지 資本主義와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레닌은 資本主義가 帝國主義의 도래와 함께 그 발전의 歷史를 마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발표가 있는지 60여년의 세월이 경과되는 동안 파멸은 커녕 그 제도적인 성숙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肉眼으로 확인하고 있다.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歷史가 가졌던 불행하였던 過去史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불행한 과거 帝國主義政策은 결과적으로 식민지 각국의 民族意識을 고취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帝國主義路線을 추구했던 자본주의 열강 스스로가 이 路線의 非合理性과 그 한계를 인식하기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마침내 그 흥역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現代 資本主義 세계에서 帝國主義에 대하여 가지는 否定的 인식은 先後 進國을 불문하고 이미 일반화된 경향이다. 이는 先·後進諸國間의 상호협력 및 무역의 擴大

34) 趙政男, “레닌主義批判”, 平和研究, Nol. 7, 1982, pp. 17~27.

를 통한 國際交流의 增進 이상으로 自國의 中극적인 利益과 平和를 保障할 수 있는 方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의 經驗적인 認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 帝國主義가 戰爭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第一次大戰 原因규명에는 一部 수긍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第二次大戰이후 있어온 重要한 武力충돌은 레닌의 帝國主義戰爭理論으로 說明할 수 있는 전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學者들의 公同된 견해다.³⁵⁾ 이러한 理論과 現實의 乖離에서 얻을 수 있는 論理的 決定은 적어도 現實에 있어서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이 타당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어진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살아 있는 理論」으로는 評價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20세기 이래 人類歷史의 전개는 社會主義的 帝國主義, 즉 사회주의의 帝國主義化 경향이라는 새로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됨은 現代史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와는 거리가 먼 蘇聯帝國主義인 점을 본다면 레닌의 帝國主義論理는 이제 社會주의의 발전논리로 현실적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³⁶⁾

따라서 現實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帝國主義의 원천은 共產主義의 赤化野慾인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대항하는 反共產主義 투쟁으로서의 反帝鬪爭의 새로운 이념정립이 迫切하게 요청되고 있다.

Ⅱ 金日成 主体思想

1. 序論：支配이데올로기로서의 「主体思想」

政治이데올로기는 특히 支配的 이데올로기가 全体主義이데올로기인 경우는 그 社會의 모든 領域을 통제한다. 社會의 發展方向도 速度도 모두 그 統制下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즉 社會變化는 이데올로기 統制下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北韓의 경우는 그 典型的인 事例에 해당된다. 과거 36년간 北韓社會는 金日成主体思想의 틀 속에서 엄청난 變化를 겪었다. 北韓社會의 劃一化作業에 저해가 된다고 판정을 받은 地主, 資本家 등은 모두 추방, 또는 숙청되어 제거되었다. 金日成体制에 대한 忠誠이외의 意見은 모두 봉쇄되었으며, 全社會構成員은 異見을 가지지 않도록 모두 再教育되었다. 北韓社會는 일찌기 그 類例가 없을 정도로 劃一化되었다. 모두가 金日成을 경배하고 그의 指示를 따르며 사는 社會로 만들었다.

35) 李相禹, “帝國主義戰爭理論”, op. cit., pp.125~129.

36) 趙政男, op. cit., p.26.

따라서 北韓의 政治, 社會生活, 統一政策 등을 論하려면 金日成主体思想이라는 北韓共產主義 体制의 支配이데올로기에 대한 論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体制에 있어서 金日成 主体思想은 政治發展의 目標과 政治活動指針을 결정해 주는 最高理論이며, 社會構成員 모두의 日常生活의 行爲準則을 결정해 주는 道德規範이고 行爲의 善惡을 가려주는 宗教이기 때문이다.³⁷⁾

金日成이 主体의 確立問題를 당내에서 公的으로 提起한 것은 스탈린의 死亡後인 1955년 12월 부터이며, 이것을 對外的으로 公式宣言한 것은 中·蘇의 理念紛爭이 두 나라를 決定的으로 分裂시키고 난 뒤인 1966년 8월 12일 字『勞動新聞』의 社說「自主性を 옹호하자」에서 었다.³⁸⁾

이때 以後로 北韓의 全 메스콤은 金日成을 「칼·마르크스 이래 가장 偉大한 哲學者」라고 宣傳하기 시작하였으며 北韓의 黨理論家와 官用學者들은 「主体思想을 마르크스 레닌主義이래 가장 深奧한 것」이라 讚揚하고, 이 主体思想이야말로 金日成이 「歷史上 처음으로」 「1930年代에 抗日鬪爭의 불길속에서」 創始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韓은 이 主体思想을 외치면서부터 反金日成勢力을 肅清하고 歷史를 改作하여 대중동원을 極大化하면서 金日成個人崇拜을 理論적으로 合理化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소위 金日成 「主体思想」이 北韓에서 이데올로기로써 行動規範化되고, 價値信念의 指針이 됨으로써 北韓政治体系의 政治文化的 特性으로 부각되고 있다면 이러한 金日成의 政治이데올로기는 어떻게 形成되었으며 그 外延과 內包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金日成 主体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는 對內政治와 對外政策 속에서 어떻게 構造化되었으며 어떠한 機能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最近蘇聯의 문헌은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은 金日成의 個人崇拜論과 양립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金日成의 個人崇拜을 合理化시키려는 主体思想은 正統的 마르크스·레닌主義와는 서로 矛盾이 되지 않는가? 또한 이것은 과연 北韓이 宣傳하는 대로 「歷史上 처음으로」 만들어진 獨創的인 理論인가? 이렇듯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根本的인 疑問들을 가지게 된다.

2. 「主体思想」의 展開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金日成이 黨의 이데올로기에서 「主体」確立의 必要性을 明示的으로 論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黨宣傳煽動員들 앞에서 行한 「思想事業에서의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할 데 대하여」한 演說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37) 李相禹, “政治理念, 社會變化와 對南政策”,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法文社, 1982), p. 294.

38) 梁好民, “主体思想과 政治教化,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政治論,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295.

다.³⁹⁾ 이 演說에서 金日成은 「어떤 사람들은 소련式이 좋으니, 中共式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의 形式과 方法을 機械的으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 鬭爭經驗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眞理를 배우는 것이 重要합니다」라고 主張하였다. 그는 人民軍 休養所에 가보니 시베리아 草原의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고, 人民學校에 가니 마야코프스키나 푸시킨의 시진등이 걸려 있었을 뿐 우리의 것은 없더라고 慨嘆하였다. 그는 主体가 確立안된 채 「남의 것을 배껴다가 외기만 하는」 黨內的 蘇聯派와 延安派, 特히 黨宣傳部長인 朴昌玉을 中心으로 한 蘇聯派에 대해 허다한 事例를 들어 公開的인 비난을 加했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主体의 強調가 시작된 것은 스탈린死後, 韓國休戰을 계기로 露呈된 國內外的 挑戰으로부터 自己自身の 政策路線과 權力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北韓에서의 金日成의 政治活動은 스탈린에 의하여 輸入된 指導者로서 시작되었다.⁴⁰⁾ 제2차 세계대전末 스탈린이 蘇聯軍의 占領地域을 衛星化하는 과정에서 現地의 政治權力을 擔當할 指導者로 擇한 者들은 거의가 土着共產主義者들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이들이 「부르조아 民族主義」에 감염되어 모스크바의 統制에 不服할 可能性이 있음을 염려했다. 그리하여 그는 蘇聯에 亡命하여 그의 政治教育과 訓練을 받고 크레믈린의 支配에 무조건 服從할 亡命共產主義者들을 이른바 政治貨物列車(baggage-train)에 실어 各國으로 송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解放된 祖國에서 黨과 國家의 最高權座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헝가리의 라코시(M. Rakosi),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틀발트(K. Gotwald), 루마니아의 안나·파우게르(A. Pauker), 東獨의 피크(W. Piek)와 폴란드의 비에루트(B. Bierut)등 스탈린主義者들은 모두 그런 指導者들이었다.⁴¹⁾ 그리고 金日成도 이런 類의 스탈린主義者들의 集團에 끼어 北韓에 들어 왔었던 것이다.

當時 北韓에는 蘇聯 進駐軍의 발자취를 따라 蘇聯과 中國에 亡命했던 共產主義者들이 入國함에 따라 크게 蘇聯派, 延安派, 國內派의 3派가 있었다. 이들은 各自의 勢力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分派鬭爭을 벌였다. 그래서 蘇聯軍政黨局은 非共產主義者들을 타도하기 위

39) 여기서 金日成은 「主体」確立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가 비록 「主体」라는 用語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1955년 4월부터는 「다른나라 黨들의 經驗을 朝鮮의 實情과 결부시켜 研究하지 않고 그것을 機械的으로 받아들여 黨員들에게 注入하는 傾向」이다 「自体的 것」과 「自己歷史」를 잘 배우려 하지 않는 黨員들의 태도를 黨內的 宗派分子 공격과 관련시켜 비난하면서 主体의 立場을 강조했다.

「김일성선집」, 4 (평양, 1960년), pp.230~231. pp.261~262. 이 부분은 前揭書(梁好民)에서 再引用.

40) 金學俊, 分斷의 背景 및 分斷固定化에 作用한 對外與件, 國土統一院, 研究報告書(76-12-60, 1976), pp.22~24.

41) 梁好民, op.cit., p.300.

해 이 分散된 3派를 結束시켜 統一的 黨을 組織케 했다. 이리하여 이 3派의 人物들은 오늘의 勞動黨의 創建者로 된 것이다. 이 3派는 黨內에서 韓國戰爭이 끝날 때까지는 權力的 派閥的 均衡위에서 外面的 團結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이 外樣的인 統一에도 불구하고 權力鬭爭이 은밀히 展開되어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탈린의 絶對支援을 받는 金日成은 黨과 政府의 最高位를 차지하고 또한 그의 權力을 공고히 해나갔다.

北韓의 金日成体制은 蘇聯의 스탈린主義体制의 複寫版이었다. 이것은 個人崇拜 思想을 조장하여 1人獨裁의 權力機構를 強化하고 있던 점에서 그러했고 社會主義建設을 大衆生活의 희생 위에서 急速度로 強行한 点에서도 그러했다. 戰爭에 의해서 폐허가 된 北韓땅에서 金日成은 급박한 民生問題를 副次的으로 돌리고 重工業 優先政策과 軍事力의 強化, 性急한 農業集團化를 기틀로 社會主義建設을 위해 全人民을 動員했다. 그런데 그 目標와 方法과 過程은 1928년 이래 스탈린이 蘇聯에서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強行하고 있던 때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였다.⁴²⁾

그러나 1953년 스탈린의 死亡과 韓國戰爭의 敗戰을 계기로 勞動黨內에서 金日成은 그의 指導權에 대한 國內派, 延安派, 蘇聯派의 挑戰에 직면하였다. 特히 스탈린의 死亡으로 후르시쵸프의 非스탈린化運動은 北韓에서도 큰 파란을 일으켰다. 누구보다도 北韓의 스탈린인 金日成은 이 非스탈린化運動에 의하여 크게 威脅을 받았고 그의 오만한 獨裁下에서 不滿에 가득찼던 黨內의 3派는 이 운동을 보고 격려를 받았다.

黨內的 소련파와 연안파등 金日成의 反對勢力들은 후르시쵸프의 路線에 共鳴하면서 金日成에 敵對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金日成의 스탈린主義的 社會主義建設方法에 반대하고 이에서 權力鬭爭의 正當性을 찾았다. 金日成은 후르시쵸프의 路線의 壓力下에서 그리고 이에 편승한 黨內的 반대세력의 反抗에 직면하면서 死活을 걸고 當의 指導權을 固守해야만 했다. 當時의 북한은 經濟와 軍事力을 전쟁의 破損으로부터 再建하고 發展시키는 데 있어 압도적으로 蘇聯과 中共에 依存하고 있었다. 모스크바와 北京의 援助에 의존하고 있는 狀況에서 金日成은 후르시쵸프志向的인 國內의 蘇聯派와 中共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有利한 位置에 있던 延安派와의 사이에서 自己의 當 指導權을 유지하고 더욱 強化하기 위해서는 民族的인 自主的인 立場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金日成은 갑자기 「自己의 것」 「제나라 歷史」,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主体를 強調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金日成이 그의 反對派와의 치열한 黨內權力鬭爭에서 自己의 當지도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상의 武器로써 主体의 確立 즉 主体思想을 出現시켰음을 뜻한다. 그에 의하면 자기의 반대파는 「남의 經驗을 기계적으로 適用한」 形式主義者와 教條主義者들이며 오직 자신만이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있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의 현실에 「創造的」으

42) 金甲喆, “北韓의 소비에트化過程”, 極東問題研究所編, 前掲書, pp. 9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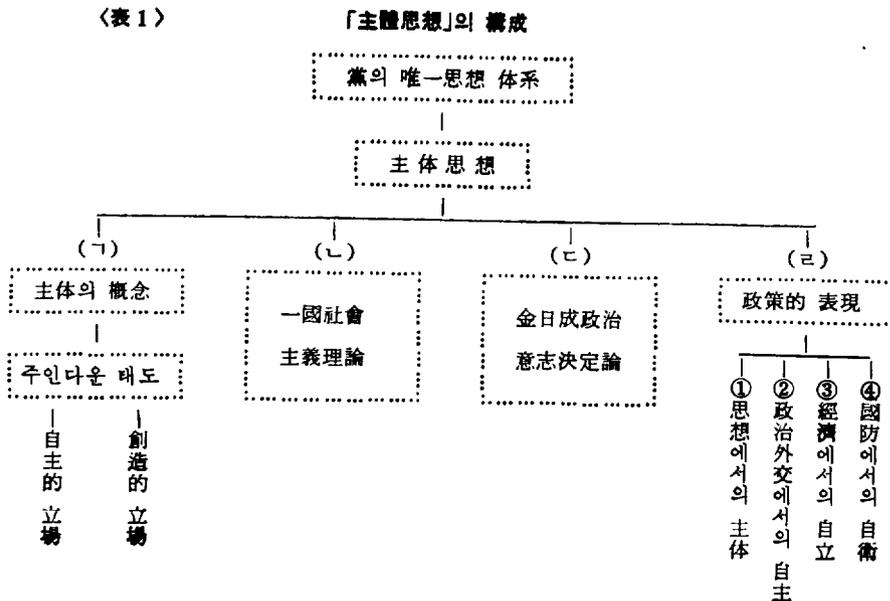
로 適用시킨 適用者라는 것이다.⁴³⁾ 이리하여 1958년말까지는 金日成에 대한 潛在的인 政敵은 모두 사라지고 金日成 個人支配體系가 확립된다. 이것은 金日成이가 「主體」라는 이데올로기의 칼을 들어 그의 반대세력인 「反黨宗派分子」들을 除去했음을 말해 준다.

3. 「主體思想」의 政治權力的 本質

金日成이 1955년 12월 主體思想을 처음 제시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보잘 것 없는 意識이요, 思想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自己의 당지도권을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武裝을 굳건히 해야 할 절박한 必要에서 時間이 지남에 따라 그것에 具體的인 內容을 부여하고 理論的인 體系를 갖추기 위하여 努力하게 된다.

金日成은 1965년 4월 自主路線의 精神的인 토대로서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을 強調했으며 이 精神으로부터 「思想에서의 主體」「政治外交에서의 自主」「經濟에서의 自立」「國防에서의 自衛」라는 네개의 原則을 세워 主體思想을 定式化하였다. 이 네개의 原則은 政治·經濟·軍事등 國家活動의 모든 分野에 適用되는 政策指針이 되어 왔다.⁴⁴⁾

〈表 1〉



가. 主體의 概念

〈表1〉에서의 (가)은 「主體」의 概念이다.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

43) 朴龍壽, 北韓 政治體系와 政治的 象徵操作(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7), pp. 27~29.

44) 金南植, "北韓의 社會體制와 이데올로기의 變遷", 北韓研究所編, 北韓社會論(서울: 1977), p. 75.

을 決定한다는 基本原理에 革命과 建設의 主体와 原動力을 人民大衆에 歸着시키고 있다. 北韓의 理論家들은 主體사상에 대해 革命과 建設에 있어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 즉 「主人다운 態度」를 견지하는 思想이라고 설명한다.⁴⁵⁾

「主體思想」의 基本원리인 人決定論은 마르크스의 歷史的 (혹은 經濟的) 決定論과 모순된다. 마르크스는 歷史에 있어서의 人의 役割을 높게 評價하려 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만일 歷史에서의 英雄의 役割이 認定이 된다면 그의 史的 唯物論(materialistic interpretation of history)은 崩壞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즉 人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면 資本主義社會의 붕괴도 人의 힘으로 豫防할 수 있다는 論理的 根據를 提供하기 때문에 그의 資本主義 必滅論은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면 金日成은 왜 마르크스의 經濟的 決定論을 修正하면서 「人의 主體性」을 強調했는가?

勞動黨이 「人決定論」을 強調했다면 強調하기 전인 1950년대와 比較하여 北韓에서 人間的 基本權과 尊嚴性이 보다 많이 向上되었고, 「人이 人을 支配」하지 아니하며, 人民大衆의 人間疎外現象이 사라졌는가? 즉 이것은 人間尊嚴을 위한 이데올로기인가? 결코 아니다.

1973년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哲學講座」(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는 처음으로 「主體哲學」이란 用語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강좌의 主要內容중 「革命的 人生觀의 本質」에 「人間的 問題」를 거론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人間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共產主義革命과 建設에 맞는 人生觀」을 다루고 있다. 그 「革命的 人生觀의 本質」章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⁴⁶⁾

- ① 定義
- ② 首領에 忠誠다할 觀點
- ③ 政治的 生命을 第一로 삼는 觀點
- ④ 革命에 몸바침을 幸福으로 여기는 觀點
- ⑤ 集團앞에 個人的 利益을 服從시키는 觀點
- ⑥ 革命의 前途를 樂觀하는 觀點

여기서 「人間的 問題」는 원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경우처럼 片面的으로 부정당하며, 主人이 首領에 忠성을 다해야 한다면 그것은 主人이 아니라 忠실한 종이며 노예와 같은 것으로 소위 「革命的 人生觀」의 기본은 金日成 個人崇拜에 두고 있고 「政治的 生命」第一主義로 人生觀의 問題를 모조리 黨的 實踐을 위한 自動人形으로 過剩同調하도록 強요하는 順應主義的 態度

45) 國土統一院, 北韓概要(서울: 國土統一院, 1980), pp.11~12.

46) 申一徽, "北韓「主體哲學」의 官學的 性格", 亞細亞研究, 62號(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pp. 28~29.

를 轉장하는 全体主義的 人間觀을 드러냈다. 그리고 幸福論도 당적 利益을 위한 희생의 강요로 轉원되고 革命的 樂觀主義를 원용해서 人生觀의 內容으로 채우고 있다.⁴⁷⁾

또한 金日成은 「主体思想」에서 主人다운 태도, 즉 革命과 建設에 있어 「自主的 立場」과 「創意的 立場」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自主的 立場」은 「自己나라의 共產主義革命과 建設을 自身이 責任지고 遂行하는 革命的 態도와 觀點」이며, 한편 「創造的 立場」은 마르크스-레닌主義原則을 지키면서 그것을 革命實踐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적용하고 發展시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原則에 立脚하여 韓半島를 共產化하고자 하는 革命的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北韓의 最高政策決定機關인 朝鮮노동당 중앙위원회의 意思를 대변한다는 「노동신문」은 72년 4월 13일자에서 「自主的으로, 創造的으로 思考하고, 行動한다는 것은 곧 자기 首領의 思想과 意志대로 思考하고 黨政策과 路線이 가르친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⁴⁸⁾

결국 主体思想에서 「主体」가 마치 「主人(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어느덧 唯物論을 휴머니즘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듯하나 여기서 특히 北韓政治現實에서의 「사람」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로 박제된 思想의 로버트이며 順應主義的인 人間형인 동시에 金日成 個人崇拜의 狂信分子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主体思想」은 오히려 北韓社會에는 金日成支配에 의한 혹심한 人間疎外가 存在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政治口號의 體系化일 뿐이다.⁴⁹⁾

나. 一國社會主義理論

金日成 主体思想의 구성 요건 중 (ㄴ)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北韓의 立場을 意味한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이 先次的인 任務이고 「프롤레타리아 國際共產主義」에 의한 世界革命의 추진은 二次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한마디로 「小스탈린主義路線」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스탈린은 1930년대에 소련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소련大衆의 동원을 위해 러시아民族主義 내지는 汎슬라브主義의 쇼비니즘을 活用하였다.⁵⁰⁾ 스탈린은 마르크스主義의 국제주의와 아울러 소련市民의 民族的 自負心을 이용할 수 있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原則을 提示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金日成도 愛國主義의 原則을 援用하여 그것이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主体思想」이 소련의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理論의 바탕에서 出發하였을

47) Ibid, p. 30.

48) 金甲喆, “北韓의 統治이데올로기의 形成과 機能, 北韓研究所”, 北韓學報, 제4집(서울:北韓研究所, 1980), p.53.

49) 申一徹, op.cit., p.38.

50) 金俊澤, 譯·제인소드著, 蘇聯統治史(서울:育法社, 1975), pp.74~76.

을 뜻한다.

그리고 위의 (7)과 (8)은 中·蘇紛爭에서 中立을 宣言한 共產主義政權들이 거의 共通적으로 標榜하는 內容이다. 즉 국제공산주의의 多中心化가 公式化된 後 그 명칭이 어떤 것이든 一獨立路線, 自主路線, 獨自의 길, 主体-거의 모든 共產國들이 내건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要素는 金日成이 처음으로 主張한 獨創的 理論이 아니다.

다. 金日成政治意志決定論

〈表1〉의 (2)은 「主体」思想이 당의 唯一体系, 즉 「首領」의 思想으로 全黨이 무장하여 首領의 唯一의 指導에 全人民이 追從한다는 金日成個人崇拜論을 合理化하는 이데올로기임을 뜻한다.⁵¹⁾ 이것은 歷史創造에 있어 人間意志의 積極적 役割을 強調하는 毛澤東思想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北韓에 있어서의 人間意志는 곧 金日成의 意志이며 그의 思想과 意識만이 歷史를 움직이는 基本的인 힘이라는 金日成 偶像化理論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歷史의 發展을 辯證法的 唯物論에서 찾는 마르크스의 「科學的 社會主義理論」과는 根本的인 矛盾이다.

最近 各國의 共產主義理論家들까지도 「主体思想」이 단지 金日成 個人崇拜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主体思想을 歷史에 있어서 決定的 役割은 階級들의 活動과 鬭爭, 人民大衆의 活動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規定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反對되는 이데올로기라고 배척하고 있다.

라. 政策的 表現

(3)은 金日成「主体」思想의 이데올로기의 構造와 政策的 적용을 具体化한 것이다.

① 思想에서의 「主体」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意味를 革命鬭爭과 建設사업에서 나타나는 諸 問題들을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主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나라 실정에 알맞게 끌어 나가는 自立性和 創造性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과 같이 「主体思想」이 革命과 建設에서 自主的 立場, 自力更生 創造的 努力을 追求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歷代의 허다한 民族主義者, 社會主義者, 民主主義者들에게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現象이요, 결코 特殊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北韓의 경우, 哲學이데올로기는 解放 이후 소련군의 進駐와 동시에 소련의 國定哲學인 스탈린主義의인 「哲學教程」 「辯證法的 唯物論」의 導入에 의한 것이었고 지난 30여년간은 哲學이나 思想에 대한 자유로운 研究는 許容된 바 없고 오로지 黨과 金日成 一人에 의한 思想統

51) 李相卞, 主体思想의 허구성에 대한 哲學的 批判, 國土統一院, 研究報告書(78-8-1422), p.82.

制의 獨裁化로 硬直되었고 마르크스-레닌主義解釋에 對한 金日成 1人獨占의 時期였다. 北韓의 哲學이데올로기가 獨自인 哲學敎本에 착수한 것은 1966년 自主宣言의 思想路線인 「思想에 있어서의 主体」란 슬로건을 내걸면서 부터이다. 이른바 北韓中心의 새 哲學敎程이다. 生産·體系化 과정이다. 이 主体哲學의 體系化는 주로 소련의 哲學敎程중 1960년의 修正된 Kuusinen 編,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礎」(The foundation of Marxism-Leninism)를 臺本으로 해서 이 體系에 金日成語錄을 加味해서 만든 것이다. 이 「主体哲學」이 提示된 時期는 1973년에 방송된 「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 「哲學講座」에서 준비되고 편찬된 것으로 보아 1973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主体哲學」은 소련 哲學敎程의 理論과 論理를 대폭 借用했던 것이다.⁵²⁾ 사실 思想面에서의 北韓의 소비에트化 과정은 먼저 소련모방을 거쳐 얼마 후에 그 모방이 黨의 利益이나 現實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自己應化(self-accomodation)의 과정을 걸어온 셈이다. 그러면서도 「主体哲學」의 구체적 형태인 「哲學사전」을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철학의 解釋權을 金日成 一人이 獨占했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스탈린 등 「古典家」들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引用이 없을 정도로 소비니즘化되고 一人獨占化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사전 권두에 「金日成의 생애와 사상」 解説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著作名이나 연설 제목을 모조리 「울림말」로 망라했고 어휘해설은 모두 金日成의 言說에서 引用하고 그 인용부터 특별히 高딴活字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⁵³⁾

우리는 여기서 金日成이 말하는 思想에서의 主体란 결국 北韓社會에는 自身에 의한 思想의 獨占만이 있을 뿐임을 스스로 폭로해 준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金日成이 解放이후 推進하고 關切한 政策들은 그가 「主体的 立場에서 創造的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蘇聯이나 中共의 政策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몇가지 예를 들면 1946년 3월의 土地改革을 비롯한 일련의 「民主改革」은 소련당국의 指示에 따른 것이요, 그 가운데 「男女平等에 관한 法令」만 보더라도 스탈린헌법을 全적으로 베꼈음을 볼 수 있다.⁵⁴⁾ 또 1955년에 發表된 人民民主主義에 對한 金日成의 理論도 사실은 毛澤東과 劉少奇가 이미 發表한 것을 그대로 모사했던 것이다.⁵⁵⁾ 이렇듯 北韓의 政策들은 「主体思想」에서 나온 獨創이 아니라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② 政治外交에서의 自主

「主体思想」이 對內政治와 外交分野에 具現된 것이 自主路線이다. 金日成은 1956년 蘇聯에서

52) 北韓「主体哲學」의 性格과 구조를 蘇聯의 哲學敎程과의 比較分析은 申一徽의 前揭論文 참조.

53) 申一徽 op.cit., p. 19~20.

54)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Ⅱ),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pp. 37~38.

55) 梁好民, “北韓에 對한 中共의 思想的·理論的 영향”, 中央大學校「論文集」, 19집, pp. 330~333.

의 스탈린 格下運動이 제기 된 연안파와 소련파의 당지도권에 대한 挑戰을 물리쳤다. 이에 대하여 中共과 蘇聯이 干涉함으로써 그는「大國主義의 쓰라린 內政干涉」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中·蘇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雙方으로 부터의 援助를 획득하기 위해 「政治的 自主性」을 標榜했던 것이다.

金日成의 政治的 自主性은 대외적 독립자주노선의 展開와 대내적 獨裁의 強化라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金日成이 對中共·蘇聯 관계에서 中立路線과 實利追求外交를 전개해 온 過程은 당내의 反對派내지는 不滿分子들을 「修正主義者」「敎條主義者」「事大主義者」 등으로 규탄하면서 권위주의적 一人支配體制를 공고히 해온 과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主体思想」에 있어서 「政治外交에 있어서 自主」原則은 두개의 目的, 즉 국제정치 關係에서는 多元化를, 國內政治에서는 一元化를 동시에 실현코자 하는 戰略的 特徵을 合理化시켜 주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權力을 극대화시켜 주는 方式일 뿐이다.

그리고 「政治에서의 自主의 原則」은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소위 「自主的 統一論」으로 나타나며 일체의 국제정치적 要因을 배제하고 순수한 국내문제로 귀착시키려 하게 된다. 이는 오직 駐韓美軍을 철수시킴으로써 大韓民國에다 相對的인 군사적 취약상태를 조성하여 南北韓間의 군사적 均衡을 깨뜨리자는 의도일 뿐이다. 韓半島로 부터의 美國세력의 排除, 大韓民國의 국제적 孤立化—이것은 金日成의 「自主的」統一論에 깔려있는 大戰略(Grand Strategy)이다.

그는 美國이 그들의 군대를 철거시키지 않고 있는 한,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駐韓美軍을 南北朝鮮人民들의 革命투쟁에 의하여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自主的」統一政策은 「南朝鮮 革命」路線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南朝鮮 革命」의 性格을 68년 9월頃부터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③ 「經濟에서의 自立」

金日成은 第一次 五個年計劃(1957~60)이 소련의 援助의 단절로 破局에 부딪치자 「自力更生」「自立經濟」「千里馬運動」의 口號를 내세우면서 理論化한 것이 「經濟에서의 自立」이다. 北韓의 선전물들은 이 自立經濟의 정신을 金日成이 最初로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은 세계공산주의자들 가운데 毛澤東이 처음으로 부르짖었다. 革命운동에서 외국의 支援를 얻는 것이 어려울 때 그는 이것을 強調하곤 했었다. 사실 毛澤東이 自力更生을 내세웠을 때 金日成이도 이를 따라서 부르짖었던 것이다.⁵⁶⁾ 그리고 北韓에서의 「千里馬運動」이 中共의 「大躍進運動」에 뒤따라 전개된 것에서도 金日成의 「自立經濟」의 정신은 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金日成이 主体를 강조하면 할수

56) 鄭世鉉, “北韓과 中共의 群衆路線 比較研究”, 自由 아카데미 研究論叢, 제1집(서울: 自由아카데미, 1971), pp. 125~127.

특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策은 中共의 것들의 模寫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2次世界大戰後, 대부분의 新生國에 있어 自立經濟의 문제는 民族的 至上目標로 되어 있는 보편적인 現象이며 다만 方法이 각각 다를 뿐이다.

④ 「國防에서의 自衛」

1962년의 쿠바事態의 發生과 후르시초프의 對北韓軍事援助의 감축등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安保上的 不安感을 가지게 했다. 그는 카리브海의 危機에서 보듯이 소련은 自國의 利益을 위해서는 兄弟社會主義國家의 利益을 美國에게 팔아 넘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金日成은 自力으로 「南朝鮮解放」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래서 「全軍의 幹部化」「全軍의 現代化」「全人民의 武裝化」「全國土의 要塞化」를 根幹으로 하는 金日成의 軍事路線은 군사력의 強化를 위해 모든 人的, 物的 資源을 動員하여 왔다. 이러한 原則은 北韓社會를 철저히 軍事化, 編制化된 共產社會化했으며 北韓共產集團을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인 勢力의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表 2〉 「主體思想」의 內容體系 形成過程

內 容	提 起 時 期	背 景
思想에서의 主 體	黨宣傳煽動員大會 (1955. 12. 28)	○ 스탈린의 死亡 ○ 黨內 國內派肅清
經濟에서의 自 立	黨中央委員會 12月 全員會議 (1966. 12. 11)	○ 對外援助減少 (5個年經濟計劃樹立蹉跌) ○ 黨內 反 金日成 運動高潮
政治(內政)에서의 自主	당중앙위원회 12月 全員會議 (1962. 12. 10)	○ 共產圈內 個人崇拜反對運動 ○ 黨內 中共派·蘇聯派打倒
國防에서의 自 衛	당중앙위원회 4期5次 全員會議 (1962. 12. 10)	○ 中·蘇紛爭의 發展과 美·蘇 共存模索 ○ 韓國의 軍事革命
政治(外交)에서의 自主	第2次 黨代表者會議 (1966. 10. 5)	○ 中·蘇紛爭의 擴大 ○ 非同盟運動의 發展
綜合體系化	黨 中央委員會 4期 6次 全員會議 (1967. 6. 28) 第5次 黨大會 (1970. 11. 12) 第6次 黨大會 (1980. 10. 10)	○ 金日成 一人 支配體制의 確立 ○ 金日成 個人 崇拜運動의 전개 ○ 온 사회의 「主體思想」 一色化

4. 評 價

결국 金日成主體思想을 재정리하면 金日成이라는 首領1人的 獨裁體制確立의 嘗爲性을 전개

하는 論理體系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레닌이즘의 여러가지 論理와 人間的 自主성과 創造性 등의 여러가지 論理는 個人과 集團을 묶는 集團主義論理와 1人的 領導論理로 인하여 아무런 의 미도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金日成主体思想의 政策的表現이라고 할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 外交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 등인데 이 모두를 관통하는 「自主性」은 결국 金日成 個人의 「制約 없는 領導」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다. 金日成思想에서의 自主의 主体는 個人이 아니라 集團이며, 이 集團의 意志는 首領의 것이어야 하므로 결국 自主의 主体는 金日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思想에서의 主体 및 政治·外交에서의 自主는 金日成이 中國共產黨 및 蘇聯 共產黨의 支配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經濟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도 金日成支配體制에 대한 外國干涉의 근거를 만들지 않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 1人獨裁體制的 타당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金日成主体思想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한 論理를 사용하는가? 왜 마르크스-레닌이즘이 아니면서 마르크스-레닌이즘을 내세우며 왜 個人 아닌 集團中心의 理念이면서 個人의 主体성과 創造性을 앞세우는 人間中心 世界觀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內外政治情勢에 부응하기 위한 政略的 考慮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北韓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닌이즘의 實踐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金日成의 1人支配體制 확립이 목표이며, 歷史的 產物로 수입하게 된 마르크스-레닌이즘을 이러한 支配體制確立의 正當化의 根據로 고치기 위해 主体思想이라는 새 政治 이데올로기를 창출해 내었다.

北韓社會는 政治이데올로기로 유지되는 社會다. 社會內의 여러 힘이 균형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安定을 유지하는 社會와 달리 政治이데올로기로 自然趨勢를 거슬리면서 統制를 加해 유지되는 社會다. 그러므로 北韓의 경우 金日成主体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는 단순히 北韓 社會를 이끌어 가는 價値定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北韓社會 存立自体를 지탱하는 不可缺의 要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北韓體制를 外部世界로부터 완전히 패쇄하지 않고서는 이룩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情報의 차단과 엄격한 情報의 통제가 그러한 상황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北韓의 體制가 그러한 완전 패쇄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金日成主体思想이 政治이데올로기로 北韓에서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Ⅳ 유로커뮤니즘

1. 머릿말

1970年代에 들어 오면서 우리나라 學界에서도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論亂이 활발해졌다. 왜냐하면 유로코뮤니즘은 神話와 現實 민주화와 독재화의 可能性을 함께 포용하면서 아직 유동적인 理念形式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스탈린」 批判과 함께 전후 東西냉전 이래 유럽 共產勢力內部에서 일어난 가장 重要的 變化中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北쪽의 共產集團과 理念的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共產主義든 그 實체를 밝혀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意味를 부여받는 作業이라 할 수 있다.

유로코뮤니즘이라는 用語는 1975年 이태리의 「밀라노」 新聞의 主幹인 「Frane Barbieri」가 그의 新聞社說에서 처음으로 使用했다.⁵⁷⁾ 서구 주요 非執權 共產黨內에서 보여 주고 있는 유로코뮤니즘의 理念的 濃淡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나 유로코뮤니즘은 서구의 주요 共產黨을 中心으로 그 理念的 形式過程을 밝아 왔고 그 뿌리가 西歐文化 속에 자리하고 있어⁵⁸⁾ 우리가 보통 유로코뮤니즘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서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3국 共產黨의 理念 및 政策을 表現하는 좁은 意味의 유로코뮤니즘을 뜻한다⁵⁹⁾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地域的 範圍를 유럽 특히 3國 共產黨에 한정된 것은 유로코뮤니즘의 理論的 實踐의 起源이 유럽에 있고 더우기 〈쥘오지 마르셀〉도 指摘한 바와 같이 이들 3國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고뇌의 상황이 유사하며 이것에 대한 解答 또한 서로 수렴하고 있다⁶⁰⁾는 點에

57) Annie Kriegel, Eurocommunism: A New Kind of Communism(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p.7~10.

58) 安秉永, 국민윤리학회춘계세미나 발표논문, 1982. 6. p.119.

59) 崔相龍, “유로코뮤니즘의 기원과 현재”, 〈新東亞〉, 1982. 5. p.215.

60) L' Humanité, 1977. 3. 5. (佛共產黨機關誌), 全得柱, 유로코뮤니즘의 특징과 그 전망, 廣場, 세계평화 교수연구회, 1982. 2. No. 122, p.96에서 재인용.

「유로공산주의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이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 수렴적인 解答를 갖고 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두가지만을 든다면 우리의 나라들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生産從事者, 人民과 민족을 도와 政治를 하기 위해서 構造的 改革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점에 우리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예는, 우리는 1977년에 와있으며 1917年 소련 혁명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에 처하여 民主의 길을 통해 社會主義 社會에 도달하기 위한 諸條件이 오늘날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우리는 또한 수십년동안 우리의 人民에 의해서 爭取되었던 個人的 및 集團의 자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유들을 확대시키는 社會主義社會에 대한 理念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물론 우리 세나라(伊·佛 및 스페인)에 존재하는 相異點을 고려하지만—현재에 사회주의에 들어간 東歐諸國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는 相異하다. 우리의 이러한 理念을 유로코뮤니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를 동의 한다.」

서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로코뮤니즘은 先進資本主義國의 共產黨이 자기 自國의 國民의 特殊性에 착안하여 問題解決 方向을 찾으려는 試圖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現在 西歐政治體制의 틀 속에서 議會主義를 통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려는 점에서 共通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說明해 보려는 努力이 다음의 글이다.

2. 유로코뮤니즘의 歷史的 背景과 展開

第20次 소련 共產黨 全黨大會에서 비롯된 「스탈린」 格下運動은 世界 共產主義 全域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이 事件은 國際 共產主義 運動에서의 모스크바의 指導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各國黨의 투쟁과 獨立性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本來 世界 革命의 총참모부요, 國際黨으로서 조직된 코민테른(1913~43年)은 레닌을 거쳐 스탈린의 一人獨裁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소련 共產黨의 對外政策을 위한 도구로 타락했고 소련 共產黨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리고 코민테른의 支部로서의 各國 共產黨은 소련의 政策과 스탈린의 一舉一同을 무조건 支持하고 소련을 옹호하는 것이 모든 共產黨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소련이 세계 최초의 社會主義國家요 社會主義의 「祖國」임으로 소련의 國家的 運命과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運命은 同一하다는 論理에서였다. 그리고 스탈린의 一人獨裁가 확립되자 코민테른은 「스탈린테른」으로 불리울만큼 스탈린 個人에 의하여 支配되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中心으로, 소련 共產黨을 그의 指導의 黨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의 暴政은 비단 소련內에서 뿐만 아니라 各國 共產黨에 대한 暴政으로 연장되어 세계의 많은 共產主義者들이 「트로츠키 主義者」, 「左·右傾의 偏向」, 「民族主義」 또는 「反逆者」로 끌려 희생되는 참담한 역사를 연출했다.

第2次大戰이 끝날무렵 소련軍은 東歐諸國을 점령함으로써 이것들을 衛星國化 하고 소련圈을 형성했다. 그리고 1947年 7月에는 소련 共產黨을 중심으로 東歐의 6個國黨, 西歐의 3個國黨(프랑스와 이탈리아)을 성원으로 코민포름을 結成했다. 코민포름의 임무는 명목상 各國 共產黨의 行동을 조정하고 情報을 교환하는 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이 나라 共產黨들에 대한 소련 共產黨(스탈린)의 支配權을 확립하고 소련軍이 진주한 東歐諸國을 급속히 소비에트化 하는데 있었다. 이리하여 이 나라들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政策을 반대하는 共產主義者들이 체포, 투옥, 처형되었고 黨과 國家는 소련의 要員들과 그들의 현지 심부들(스탈린 主義者)의 鐵拳政策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테러리즘, 착취, 無法, 獨裁者에 대한 個人崇拜, 秘密警察, 소련禮讚이 天地를 뒤덮었다. 이러한 모스크바의 지배를 벗어나 自主적으로 社會主義를 실현하려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民族主義者」·「파시스트」·「帝國主義의 走

狗)의 낙인이 찍히면서 코민포름에서 파문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그밖의 東歐諸國에서는 自主性을 지닌 最高委黨指導者들과 무수한 黨員들이 「티토主義者」로 몰려 비운의 숙청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되자 1956年 12月 이태리共産黨 第8次 大會에서 당시의 書記長 토리아티는 「社會主義에로의 이탈리아의 길」을 원칙으로 하는 構造改革路線을 提起했다. 構造改革은 社會主義의 多樣性和 民主主義를 重視하는 路線으로 이탈리아共産黨 基本戰略이며 여기서 제기된 多中心主義(Polycentralism)은 그 후 유로코뮤니즘의 基本原則이 되었다. 즉 그는 「크레폴린」의 頂点이 되는 共産主義體制를 떠나 각국이 그들의 獨自의 文化와 부합되는 共産主義모형을 주장하였다.⁶¹⁾

이렇게 世界共産主義運動의 多中心化(Polycentralism) 추세는 서구일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1964年 소련共産黨指導部에 보내진 토리아티의 「알타자서」는 나라마다 社會主義로의 독자적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토리아티의 政治的 遺書는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유로코뮤니즘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로코뮤니즘의 形成에 결정적 役割을 한 또 하나의 사건은 「프라하의 봄」으로 표상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運動이었다. 이 改革은 中央集權的·관료적 社會主義를 批判하고 이른바 「人間的 면모의 社會主義」를 추구하였으나, 같은 해 8月の 소련 등의 무력개입으로 끝내 그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소련의 체코介入은 西歐共産主義者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그들은 소련이 중심이 되는 國際共産主義와 「레닌이즘」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태리, 폴란드 및 스페인의 유로코뮤니스트 指導者들이 체코의 「두브체크」를 支持하였고 反蘇路線을 택하였다. 西歐의 共産主義者들은 더욱 自主路線을 취하게 되었고 「두브체크」의 「人間的 탈을 쓴 社會主義」는 유로코뮤니즘의 모델이 되었고 소련共産主義모형은 배척받기 시작하였다.⁶²⁾

「프라하의 봄」에 나타난 改革과 유로코뮤니즘의 유사점으로는 ① 마르크스主義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獨自性 ② 暴力革命的 폐지 ③ 인도주의 다원주의 결사의 自由 등 서구적 價値의 옹호에 있다. 「프라하의 봄」 당시의 체코의 改革主義者들은 소련모델과는 다른 서유럽의 價統에 뿌리박은 社會主義를 창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思想內在的으로는 유로코뮤니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⁶³⁾

61) Pefer Hardi, "Why do Communist Parties advocate Pluarlism", World politics, July, 1950, pp. 531~550.

62) Teresa Rokowska-Harmstone and Adrew Gyorgk(edo) Communism in Eastern Europ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9), p.126.

63) 崔相龍, op.cit., p.218.

그러나 유로코뮤니즘이 독자적인 政治勢力으로 급격한 成長을 이룬 것은 1970年代에 진입한 이후의 일이다. 특히 칠레에서의 마르크시즘을 표방했던 「아엔데」 政權의 좌초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칠레에서의 狀況分析을 통하여 社會主義 주도하의 民族戰線에 대한 칠레국민의 支持기반이 취약했음을 하나의 교훈으로 배웠다. 이로써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도의 성과로서 집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同盟政權으로 보다 견고한 국민적 支持기반을 굳혀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칠레에서의 산교훈은 1973년 이태리 共產黨의 指導者 벨링구에르가 이 나라 카톨릭세계에게 이른바 「歷史的 和解」를 계의하는 계기를 열었다.⁶⁴⁾

이후 1970年代가 진행되면서 유로코뮤니즘의 「現存」 共產主義體制에 대한 批判과 의식적인 經援의 빈도가 점차 늘어났다.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改革 共產黨들은 개개당의 政策路線과 행동강령을 작성, 그들의 政治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했고 1970年代가 깊어 가면서 급작스럽게 그들 相互間의 衝突유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소련은 1970年代 중반을 고비로 유로코뮤니즘의 비중을 분명히 인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과의 결정적인 단결을 원치않는 소련의 反應은 단호하기 보다 소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았다.

3. 유로코뮤니즘의 이데올로기적인 定向

가. 獨自的 社會主義 路線

西歐 共產主義者들은 모두 共產黨이 자기 自主성과 平等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한결 같이 공산주의 세계운동의 單一的 세력중추를 거부하며 소련에의 종속화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개념을 부정한다.⁶⁶⁾ 이들에 의하면 각국 共產黨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실현시키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더우기 그들은 각국의 傳統, 즉 자신의 經濟, 政治 및 文化의 특수성의 토대위에서 소위 「多樣性 속에서의 통일원칙」을 支持하고 있다.

共產黨들이 그 세력이 강한 黨이든 약한 黨이든간에 그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호평등과 內政不干涉에 기초를 두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4) 安秉永, op. cit., pp. 121~125; Berlinguer, Enrico, Der historische Kompromis, (Berlin:1976), p. 13 ff.

65) Spieker, Manfred(Hrsg), Per Eurocommunismus Demokratie oder Diktatur, (Stuttgart:1979), pp. 30~40.

66) 安秉永, op. cit., p. 126.

모스크바가 좋아하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대신에 歐洲 共產主義者들은 각 政당의 同等 權, 독립과 자주의 토대위에서 상이한 여러나라 共產黨간의 自意的 합의라는 의미에서 「국제적 連帶」(International Solidarity)라는 개념의 사용을 더 원하고 있다.

나. 社會主義로의 民主的 道程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부정하며 국민다수의 支持를 바탕으로 하는 「社會主義로의 民主主義的 道程」을 강조한다.⁶⁷⁾

유로코뮤니즘이 주장하는 社會主義로의 이행전략을 전체적으로 다룬 것은 1975年 11月 이탈리아, 프랑스 두 共產黨간에 이루어진 「로마선언」이다. 이 선언의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는 民主主義와 自由의 보다 높은 段階를 이루는 것으로서 철저한 民主主義다. 둘째 社會主義의 건설은 經濟 社會 政治生活의 끊임없는 民主化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反정부정당의 存在와 活動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다수파와 소수파의 形成의 自由 및 民主的 政권교체의 가능성, 넷째 勞動조합의 活動의 자유와 自主性, 다섯째 근로자가 실제상의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고 광범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내의 民主主義의 발전 등」.⁶⁸⁾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3國 共產黨의 강령에 공통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이탈리아 共產黨이 보수당과의 역사적 타협을 제안했고, 프랑스 共產黨이 좌익연합의 「공동강령」을 채택했으며, 스페인 共產黨이 1975年 9月 이른바 「강령적 선언」을 내놓으므로 이 3國 共產黨의 전략은 각기 자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社會主義革命을 목표로 하면서 서유럽의 民主主義的 傳統을 중시하는 혁명전략이란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다. 마르크스主義의 개방과 對話의 지향, 그리고 레닌의 민주집중제의 부정⁶⁹⁾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단일적 세계관으로서의 소비에트형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거부한다. 유로코뮤니즘은 그 反教條的 立場에 따라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독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민주적 중앙집권제 등 주로 레닌主義的 性格이 강한 술한 理念的 要素들이 부정되었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脫神話化 過程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보다 신축성 있는 知的 해석이 가능하게 되자 진취적 마르크스主義者와 다른 世界觀을 가진 政治社

97) Spieker, Manfred(Hrsg), Der Eurocommunismus Demokratie oder Diktatur, (Stuttgart:1979), pp. 30~40.

68) 崔相龍, op.cit., pp. 221~222. 재인용.

69) Leonhard, Wolfgang, Eurokommunismus Herausforderung für Ost und West, (München:1978), pp. 15~16. ; 全得柱, op.cit., p. 98.

會 세력과의 대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즉 歐洲共產主義者들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으로서 소련식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거부한다. 소련식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마르크스」, 「엔겔스」와 「레닌」의 敎義를 소련에 이롭게만 해석하므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過去, 現在, 未來에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自然社會 및 人間思惟의 일반적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 대신에 「科學的 社會主義」를 原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소련 및 東歐諸國의 共產主義가 敎條的 독선적 이데올로기이므로 이와는 달리 「科學的 社會主義」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누구나 토론할 수 있으며 批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共產主義에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入黨을 원한다면 입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歐洲共產主義者들은 「이데올로기투쟁」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제한되고 過去世紀에 일시적으로 생성된 현상으로 보는, 義務化된 무신론을 저버리고 오히려 서로 배우기 위해서 상이한 세계관들과 동등한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과 프랑스의 共產黨들은 共產主義와 카톨릭간의 對話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레닌의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부정한다. 그들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黨構造를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현재 東歐에서 실천되고 있는 「레닌」의 黨理論을 거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democratic centralism), 즉 명령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下向式體系를 갖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革命的 엘리트黨, 강철과 같은 黨紀律, 모든 당원의 이데올로기적 信念下에서 조직, 즉 勞組, 청년단체, 협동조합 및 문화단체들은 共產黨의 指導部에 예측되어야 하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신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레닌」의 黨理論을 거절한다. 그 대신 그들은 黨構造의 서방식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라. 西歐文化 및 後期資本主義 社會의 經濟社會的 상황인식

유로코뮤니즘은 그 이름이 표상하듯 「서구적」인 특성을 많이 함축하고 있다. 스페인의 共產黨首인 카릴로(-Carrillo)에 따르면 「유로코뮤니즘이 추구하는 의회제도, 정치적 다원주의, 권력분립의 理論, 분권화 및 인권존중 思想」 등은 「西歐政治体制의 기초」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東西의 超強國을 중심으로 형성된 「블럭논리」의 극복을 주장하며 이 때문에 서구의 강화와 통합에 대하여 긍정적인 눈길을 보낸다.

유로코뮤니즘의 범주를 서구로 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은 대체로 「고도로 産業化된 나라들이 공유하는 제반문제」의 존재와 「獨占的 國家資本主義의 위기에」 대한 해답의 필요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서구문화의 知性사적 맥락보다도 이른바 후기 資本主義社會의 經濟社會的 상황의식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⁷⁰⁾

70) 安秉永, op. cit., p. 122.

3. 유로코뮤니즘의 長期 戰略的 定向⁷¹⁾

유로코뮤니즘에 의하면 西歐의 資本主義 질서는 대중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데올로기 체계이기 때문에 인민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국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도구들이 강조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도구들에는 宗教的(상이한 教育体系), 教育적(教育制度), 家庭的, 法律的, 政治的(政治体制와 政黨体制), 文化弘報的(신문, 방송, T, V와 기타 예술문화) 도구들이 속하는데 이러한 도구들을 약화시켜야 하며 이중 특히 大衆媒體의 政治的 傳向에 큰 힘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비롯한 이념기구의 전향은 여론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변화된 여론의 기세를 빌어 「강제기구(군·경찰)」의 약화와 그 민주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체제의 방위력은 극도로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으로 서구 資本主義 질서는 전복될 수 없고 다만 기존질서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그 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록 暴力革命은 부정되었으나 그 적나라한 体制變化 戰略은 유로코뮤니스트의 民主化의 신앙고백에만 현혹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역시 그들은 최종 목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느낌때문이다.

4. 유로코뮤니즘의 問題點과 評價

政治理念면에서 유로코뮤니즘이 갖고 있는 모순을 두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問題點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로코뮤니즘이 戰略用이나 戰術用이나 하는 점이 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장기 전략적 개념으로서 유로코뮤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단지 西歐社會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戰術的인 一側面을 否定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세우는 民主化의 신앙고백에 대해 누구나 얼마간의 회의를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유로코뮤니스트 政黨들이 하나같이 黨內民主主義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집권용으로 내놓은 위장된 소비에트형으로 매도당할 개연성이 크며 그 結果 이들의 政策的 설득력에는 항상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둘째 실제로 社會民主主義와의 區別이 극히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共產黨을 비롯한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그들 나라들의 資本主義的 현상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서구의 經濟的 政治的 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中·短期的 改革政策에 주된 관심을 표명하여 이른바 社會主義 건설의 문제를 먼 장래의 問題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강하고 적어도 이것이 戰術的 變化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실제로 社會民主主義와 다르냐 하는 의문에 봉착

71) Corrillo, Santiago, Eurokommunismus und Sfaat, (Berlin : 1977), p.20 ff.

하게 된다.

이렇게 유로코뮤니즘의 내용과 범위가 지극히 애매하고 아직도 유동적인 理念形式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理念의 제반 특성이 政治現實에 투영될 때 변용될 수 있는 진폭이 자못 클 것이다.⁷²⁾ 따라서 유로코뮤니즘은 금후도 언어상의 급진주의 실천상의 프라그마티즘 戰略上的 내소날리즘의 혼합술⁷³⁾로서의 性格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理念的인 흡인력도 현실적 무력으로 인하여 政治的으로 早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간의 選舉結果가⁷⁴⁾ 이러한 무드를 잘 말해주고 있다.

V 마르크스主義的 從屬理論

1. 從屬理論과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70년대 후반부터 단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從屬理論은 최근에 와서 젊은 세대의 학생들 사이에 커다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批判이란 단계에 까지 파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從屬理論을 국내에 소개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특수성을 의식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理論은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체제에 도전하는데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中南美를 중심으로한 第3世界의 低開發의 診斷과 處方을 목적으로 삼고, 기존의 發展理論에 대한 代案으로 등장한 從屬理論은 그 출발에서 부터 술한 논의와 화제를 불러 일으켜 왔다. 이 이론은 아직도 記述次元에서 머물러 있는 가설적 이론에 불과하며 概念과 學派가 뚜렷이 전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論理的 문제점과 현실적용의 難點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⁵⁾ 특히 이 理論은 概念의 단순화와 圖式化로 인하여 상당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72) 安秉永, op. cit., p. 129.

73) 崔相龍, op. cit., p. 203.

74) 1976年 총선에서 34.4%의 득표율을 올려 집권의 문턱에까지 근접하였던 이데리共産黨이 1970年 代末을 고비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프랑스共産黨은 비록 聯政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得標率 15%로 사상최악의 기록을 내었다. 스페인共産黨 또한 프랑코 사망이 후 정치적 공백기에 세력신장을 꾀했으나 오히려 최근 당세가 쇠잔하여 근래에 있었던 下院선거에서 득표율 2.8%를 얻으므로서 기존의 하원의석수 23석에서 7석으로 감소되었다.

75) 文丞益, “從屬理論이란 무엇인가”. 尹謹植編, 現代政治의 政治經濟學分析, (서울: 法文社, 1980).

사람들은 쉽게 말려들어 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부 대학생들은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外來理論인 從屬理論을 批判的으로 受容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 理論의 「一分派」 즉 南美의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行動主義的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마구잡이로 적용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옮기려는 폐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政治的 經濟的 現實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해방후의 우리나라 現代史의 전체적인 전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60년대 부터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바탕이 되어 이룩해 온 우리의 經濟的 成長을 否定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단순히 강대국과 그에 야합한 지배계급의 경제이익의 반영으로만 보고 있다. 또 우리의 역사는 買辦資本 買辦官僚 買辦軍閥의 결탁에 전개된 것이라고 규정짓고 反美·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며 이의 해결은 오직 暴力에 의해 現政府를 타도하고 社會主義的 革命的 길을 가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⁷⁶⁾

그러하여 그들은 從屬理論이 發展의 代案을 제시하는 萬病通治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다.⁷⁷⁾

여기에 便乘이나 하듯이 北韓共產集團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南韓革命戰略에 따라 이와같은 일부 지식인 및 대학생들의 性向에 맞추어 「意識化 工作」과 對南우회 침투를 통한 「組織化 工作」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이 일부 지식인 및 학생들의 理念변질현상을 南韓혁명수행 여건조성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사태의 일대 전진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의 상극된 이데올로기로 對峙하고 있는 우리의 南北韓관계 現實에서, 마르크스主義와 分析的 視角을 같이하는 A. G. Frank와 같은 急進主義者들이 주장하는 過激한 「從屬理論」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실을 조명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位置와 우리의 課題를 바로 인식치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이나 또는 이데올로기적 虛偽意識에 사로 잡혀 있다면 그들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知性的 成熟을 통하여 現實을 歪曲하는 急進的 從屬理論의 拘束과 魔力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時代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당면한 時急한 課題라고 볼 수 있다.

76) 李奎浩, "生存과 번영을 위한 決斷", 1981. 2. 이데올로기 批判세미나 발표.

77) 廉弘喆, 從屬理論—低發展의 政治經濟學, (서울: 法文社, 1981), p. 219.

2. 從屬理論의 背景과 內容

가. 形成 過程

從屬理論이란 2차대전후 제3세계 특히 中南美諸國의 經濟가 15세기의 重商主義 이래 지금까지 第一世界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從屬構造의 실상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그에서 결과된 第三世界의 정치, 경제적 低開發現象을 기술, 설명, 비판하고 그들 나름의 發展代案을 제시하는 일련의 이론체제이다.⁷⁸⁾

라틴아메리카 後進國들은 戰後 西方 資本主義가 秩序를 回復하면서 世界經濟를 主導, 後進國에도 成長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期待했으나 先進國들과의 갭은 벌어지기만 했다.

이같은 背景下에서 後進國들은 西歐學者들이 主張하는 資本主義 經濟 理論은 低開發國家에 는 맞지 않으며 國際經濟에 參與하면 할 수록 擲取만 當한다는 理論을 主張하게 된 것이다. 西歐學者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발전 또는 성장이론은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진화론적 개념으로 설명한 이른바 擴散모델(diffusion model)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발전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현재의 저개발국가들의 종속현상도 初期資本主義가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내의 上層階級이 부유해지면 자동적으로 그 富가 下層階級으로 이전되고 富國의 好況을 누리게 되면 그 惠澤이 貧國에도 파급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先進國의 규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從屬理論家들이다.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독립된 이래 계속된 近代化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低開發現象은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南·北간의 貧富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종래의 어프로치와는 다른 새로운 視角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視角이 곧 從屬理論이다.⁷⁹⁾ 그래서 從屬理論家들은 제3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病理現象에 대한 근본적인 原因은 곧 제3세계가 제1세계에 從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크게 나누어 네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⁸⁰⁾

제1단계는 UNECLA(Unifi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책임자였던 Raul Prebisch가 1949년 UN에 제출한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78) 金浩鎭, 從屬理論批判, 國民倫理學會, 82년 春季세미나 주제발표, p.93.

79) 전웅, "종속이론의 한계와 오류", 연세춘추, 82. 4. 12, 제922호.

80) 金浩鎭, op. cit., pp.94~95. 그리고 從屬理論의 發展歷史를 간략히 기술한 것으로 다음을 參照할 것. Ronald H. Chilcote and Joel C. Edelstein(eds), Latin America; the Struggle with Dependencg and Beyond(New York: John Wiley, 1974), pp.39~46.

Principal Problems”이란 보고서에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경제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中心國(Metropolis)과 周邊國(Satellite) 사이의 不平等 교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 해결책으로 輸入代替産業의 강화를 제안한 시기다.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이러한 Prebisch의 견의에 따라 輸入代替産業을 주축으로 한 工業化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低開發의 심화뿐이었다. 주요원인은 多國籍 기업의 창궐과 外賣의 누증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오히려 대외 종속을 가중시켰다.

제2단계는 6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ECLA의 代案을 비판하고 그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Frank 중심의 CESO學派 (Centro do Estudios Sociales of the Universidad de Chile)와 Dos Santos 중심의 CREEN 學派(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Nacional of the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에 의해 從屬理論은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단계를 발전단계라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2단계에서 形成된 종속이론이 Osvaldo Sunkel 등에 의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더욱 구체화된 단계이며, 4단계는 70년대 초이후 지금까지 종속이론학과 내에서도 從屬理論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自家批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를 뜻한다.

이와같이 從屬理論은 形成·發展되어 온 것인데 아직도 未完成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從屬理論이 대두하게 된 背景에 있어 看過해서 안될 사실은 이 이론의 등장은 제3세계의 民族主義運動과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從屬理論家들은 第一世界의 發展論者의 主張을 第三世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회의를 품고 自己固有의 文化, 價値를 바탕으로 발전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理論의 정립에 전념케 된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그 형성과정과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南美를 중심으로한 제3세계학자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自主的 국가발전과 민족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립한 이론이기에 그것은 학문적인 屬性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의인 屬性이 混在하는 이른바 民族主義 實踐理論으로 간주될 수 있다.⁸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從屬理論은 제3세계의 低開發問題를 조명하는데 있어 自我準據의 問題意識과 視角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나. Frank의 從屬理論(急進論的 從屬理論)

開發國과 低開發간의 從屬現象에 대한 대표적 定義는 「從屬이란 어느國家의 經濟가 그들이 종속된 다른 국가의 발전과 팽창에 의해 條件지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개발국가는 개발 국가의 발전에 좌우되고 經濟는 물론이고 政治·軍事·技術·文化·情報 등 여러 차원에서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영구히 저개발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⁸²⁾

81) 陳德奎, “제3세계의 政治理念”, 東亞日報社 安保統一研究所編, 제3세계, (서울: 동아일보사), 1980, p. 49.

82) 전승, op. cit.

그러면 이와같은 제3세계의 從屬構造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從屬理論家들은 그 시기의 원형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에서 부터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즉 15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重商主義 및 資本主義의 팽창기운은 海外植民地를 개척, 수탈하기 시작했으며 世界經濟秩序를 유럽이라는 中心圈과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邊防國의 종속관계로 변모시켰으며 이 종속관계는 국제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팽창을 통해 植民地型 從屬관계→金融産業型從屬體制→技術·産業型 從屬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⁸³⁾ 그 결과 중심권의 발전은 가속화되었으나 변방권의 경제는 「低開發의 開發」 현상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⁴⁾

라틴아메리카의 經濟, 政治的 低開發 現象을 西歐의 資本主義 國家와 연관시켜 全世界的 次元에서 政治, 經濟的 體系를 살펴봐야 한다는 從屬理論은 主唱者들은 即 Raul Prebisch, Celso Furdado, Antonio Parros de Castro, Andre Gunder Frank, Dos Santos, Osvaldo Sunkel)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特히 急進主義的 從屬理論家의 代表的인 Frank의 主張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은 이들社會가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矛盾 即 메트로폴리스(中心·Metropolis)와 세틀라이트(周邊·Satellite)의 連關性 自体가 低開發을 漸次로 擴大再生産 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⁵⁾

라틴아메리카의 經濟는 16세기 부터 植民地로 征服된 以後 世界資本主義의 搾取 構造속에 編入됨으로써 先進 中心國의 周邊國 即 衛星國家의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形成시킨 經濟的 剩餘는 中心國으로서의 西歐資本主義 發展은 持續的으로 促進시켰지만 그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에 對해서는 低開發을 累積化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國際的인 中心國과 周邊國의 關係는 라틴아메리카의 國內社會에서도 또한 中心圈과 周邊圈이라는 二重 構造를 造成시킴으로써 中心部로서의 大都市와 周邊部로서의 下層階級과 農村地域의 二重構造를 造成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國內的인 二重構造의 支配, 從屬關係는 價値配分의 不平等을 誘發함으로써 격심한 貧富의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셋째로 라틴아메리카의 階級構造中에서 特히 國際的 中心圈에 依해서 造成된 國內의 支配階

83) ① 植民地型 從屬關係는 15세기 유럽제국과 식민지제국과의 關係를 뜻한다.

② 金融産業型 종속체제는 18세기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유럽강과 후진 나후지역과의 關係를 뜻한다.

③ 技術·産業型 종속은 다국적 企業을 매체로 하여 강대국과 후진국과의 關係를 의미한다.

84) 「低開發의 開發」(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현상은 ① 외국자본의 대량침투 ② 선진의 국기술의 대량도입 ③ 수입대체산업의 비대 ④ 엘리트계층의 소비패턴 서구화 ⑤ 불명등 交易 ⑥ 소득격차의 심화 및 실업의 증대현상등을 지칭한다.

Andre Gunder Frank, On Capitalist Underdevelopment, (Bombay: Oxford Univ. Press, 1955), 參照.

85) 廉弘喆, op. cit., pp.88~90.

層인 부르조아지에 對하여 注目하면서 이들이 곧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을 持續시키고 있는 階級構造的 條件이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新植民主義的 認識에 바탕을 둔 國內植民地(Internal colonialism)의 性格이라고 보고 있다.

네째로 라틴아메리카 低開發에서 벗어나는 길은 武裝鬭爭에 依한 資本主義 體制의 打倒와 社會主義 體制를 成立시키는 데 있다. 社會主義 革命에 있어 主要 敵對勢力은 中心國 即 西歐資本主義國家인 帝國主義 勢力과 이에 同조하는 國內 買辦엘리트들이다. 그리고 革命의 推進은 戰略上 國內 買辦엘리트를 相對로 展開해야 하고 革命 推進의 中樞 勢力은 知識人 또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이며 動員의 主對象은 民衆階級(一般 被支配階級)이 해야 한다고 主張한다.⁸⁶⁾ 이러한 觀點에서 Frank는 人間的인 社會의 성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적 양식과 자본주의적 국가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이와 같은 Frank의 主張에서 從屬理論이 가지는 新마르크스主義的 性格을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⁸⁸⁾

첫째로 Frank가 주장하는 급진론적 從屬理論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理論體系의 틀에서 그의 가설을 입증하려 한다. 그의 世界的 國家的 Metropolis-Satellite의 概念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의 理論에 對한 變用이며 제3세계의 저발전 상태를 과거와 현재의 서구자본주의의 帝國主義의 支配의 結果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從屬理論이 다루고 있는 重要한 認識의 바탕은 文化中心的인 性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物量中心的인 即 唯物論的 認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點이다. 從屬理論은 意識이 狀況을 決定하는게 아니고 狀況이 意識을 決定한다는 觀念위에 基礎하고 있다.⁸⁹⁾

세째로 Frank의 境遇 라틴아메리카의 解放은 단지 經濟發展에 依한 社會성원의 物量的 증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配集團의 改革에 依한 政治的 改編에 依해서가 아니라 바로 暴力的 改編에 依해서 既存體制 전복만이 唯一한 方法이라는데서 마르크스 레닌主義的 性格이 있다.

네째로 從屬理論은 그것이 目標로 삼고 있는 社會秩序가 平等社會의 確立을 一次的인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從屬理論은 이제 오늘의 第3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低開發을 說明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從屬理論家들의 견해를 빌리면 오늘의 第3世界가 形式上 獨立은 했으나 經濟的인 次元에서는 몇몇 中心國에 依속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第3世界諸國이 國際資本主義 經濟 秩序속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技術的 地位가 너무

86) 陳德奎, op. cit., p.56.

87) 廉弘喆, op. cit., pp.62~65.

88) 陳德奎, op. cit., p.62.

89) 金澤東, "사회변동의 성격과 발전의 논리", 月刊朝鮮, 81. 12月號, p.55.

〈表 3〉 從屬學派內的 두 觀點

관점 주제	부르조아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從屬에 대한 鬭爭	從屬의 克服은 國家發展(資本主義的인)을 유도한다.	生産手段의 私의 所有權을 극복하면 資本主義體制의 붕괴와 社會主義的 發展이 유도된다.
階級	國家發展을 통해 自主的인 위치에 서게 된다. 과두支配者와 부르조아지, 그리고 기본 계급으로서의 民族的 부르조아지들로 구성되는 中間部間을 強調한다.	점차 갈등 상태로 되어간다. 봉건 계급, 부르조아지, 그리고 기본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들로 구성되는 無産階級을 강조한다.
資本主義的 發展	古典的 資本主義와 종속적 資本主義를 區別하는 유형에 根據를 두고 있다.	生産樣式, 生産의 社會的 關係, 階級鬭爭 등에 입각한 法則들에 根據를 두고 있다.
國 家	종속을 제거하기 위한 鬭爭에 있어서 民族에게 기여한다.	資本主義的 發展과 국가적 종속을 피호 유지하는데 있어 支配階級에게 기여한다.
帝國主義	종속국가에 대한 支配國家의 착취를 說明해 주는 政治的·軍事的 背景과 연관되어 있다.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 있어서의 모순의 궁극적인 發展에 영향을 미치는 資本主義的 獨占段과 연관되어 있다.
學 者	Furtado, Sunkel, Dos Santos	Frauk, Amin, Wallerstein

※ 출처: Ronald H. Chilcote "A Question of Dependency" Latin American Review. vol 13, no. 2(1978), p.6, 廉弘喆, op.cit., p.63, 재인용.

나 열세하기 때문에 經濟的으로 심지어 政治, 文化面에 있어서도 國際資本主義 列強, 이른바 第一世界와 中心國에 從屬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 政治的 低開發까지 露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第三世界가 겪는 政治, 經濟的 진통은 從屬이 낳은 必然的 結果라는 이다.

3. 從屬理論에 對한 批判的 評價

지금까지 우리는 從屬理論의 意味, 形成背景, Frank流의 主要論點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관심을 돌려 從屬理論이 갖는 社會科學的 意義가 있다면 무엇이며, 問題點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를 살펴보자. 從屬理論이 갖는 학문적인 공헌은 그것이 第三世界의 주체적 입장에서 社會現象을 분석하는 進步的이고도 自我準據的 視角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제3세계의 低開發 現象을 분석하는데 있어 과거의 西歐의 近代化論者들이 미처 관심을 못가진 歷史的, 國際的 制約, 構造論的, 主體의 시각에서 접근, 제3세계의 外在要因과 內在要因이 구조적으로 융합된 이른바 從屬構造의 力學作用을 분석의 軸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학문적 공헌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⁹⁰⁾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와같은 사회과학적 의의가 있음에도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가. 方法論上 및 理論上의 問題點

첫째로 方法論的인 측면에서 볼 때 從屬理論은 國家를 際經濟秩序의 從屬變數로 간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저개발연상순 국제경제체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경우 분석의 기본단위는 국제체제나 질서가 되며, 제3세계 국가는 자율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실적으로 日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은 자신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경제질서상의 位相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이론은 논리적인 비약이요, 독단적이다.

둘째로 종속이론은 理論으로서 하나의 범례에 불과하며, 비과학적인 규범론이며 從屬에 대한 概念은 세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⁹²⁾ 다시 말해서 종속이론은 假說檢證과 一般理論을 導出하려는 努力을 등한시하고 다분히 價値含蓄的인 主張만 편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구조에 대한 조직적 검토와 규명, 사례연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수고려 비교분석, 역사적 조사분석등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 점이다.

나. 「中心—周邊」關係論에 대한 批判

첫째로 종속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주변」關係라는 기본 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독단적이라는 점이다. 종속이론가들은 종속을 너무 二分的 變數로 개념화하고 있다. 모든 국가를 中心(착취) — 周邊(피착취)으로 규정함은 단순한 黑白論理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從屬文獻에서 中心國家로 분류하고 있는 캐나다, 벨기에가 從屬國家로 인정되는 印度나 파키스탄보다 해외투자부문에서 훨씬 더 선진국에 종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중에는 상당한 나라가 資本主義的 貿易體系에 통합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우들을 간과할 수 있다. 世界銀行의 발표에 의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상회한 제3세계국가가 20개국 가량되는데 이들 국가들 중 產由國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전대 이 경우에는 종속이론가의 주장이 빛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⁹³⁾

90) ① 金浩鎮, op. cit., p.108.

② 廉弘喆, op. cit., p.214.

91) 金浩鎮, op. cit., pp.103~109, 參照.

92) 전용, op. cit.

93) 劉英俊, “從屬論·그 理論과 實態의 乘離”, 京郷新聞社, 大學과思想, (서울:京郷新聞社, 1982), pp.82~83.

둘째로 「중심—주변」關係論은 편향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설화했다는 점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중심—주변」관계의 사례 즉 오늘날 「東歐經濟 相互援助會議」(COMECON) 내에서 동구공산국가들이 경제적인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부문에서조차 소련에 종속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종속관계의 설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이는 때버리고 단지 개발된 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된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만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종속이론은 종속이 단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빚어지는 전유물처럼 폭해하고 있는 것이다.⁹⁴⁾

다. Frank의 開發戰略上的 問題點

급진론적 종속이론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종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회주의 暴力革命이며, 그런 연후에 自給體制(Atarky)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론자들의 戰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⁹⁵⁾

첫째로 方法의 非道德性을 들 수 있다. 暴力을 통한 개발의 추구는 결코 道德的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戰略의 非現實性이다. 暴力으로 기존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희박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셋째로 政策的 失敗可能性이다. 즉 지금까지 제3세계국가들이 사회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은 거의 다 경제성장에 失敗를 했다는 사실이다. 탄자니아가 그렇고 앙고라, 버마, 리베리아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최근 中共이 現代化를 위해 開放政策을 취하고 있음에서 실감 있게 반증해 주고 있다.

네째로 論理的 虛偽性과 矛盾性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평등과 정의가 구현되는 인간적인 社會를 성취하기 위해 社會主義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폴란드 事態에서 보듯이 共產主義體制는 그들이 목표 가치로 내세웠던 平等社會의 실현대신에 군사적 劃一社會를 구축하였다. 官製의 이데올로기와 階層的 官僚秩序는 창조적 사고와 社會의 多元主義의 출현을 그 씨앗부터 눌러버렸고 자유로운 정치과정을 閉塞시켰다. 이렇듯 非人間化된 상황속에서 共產主義 體制가 아직도 내세우는 平等社會의 정치적 구호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빛바랜 神話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종속이론의 발전대안은 비현실적인 허구이며 현실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革命이 주목적인 분 진정한 인간조건의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非人間的 代案으로 볼 수밖

94) 嚴弘喆, “從屬理論의 根本問題 I·II”, 京郷新聞社, Ibid., p.92.

95) 이 부분의 金浩鎭의 論文(op. cit)에 거의 의존하였음. pp.112~113.

또한 Benjamin J Cohe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Basic Books, Inc, 1973), 參照.

에 없다.

4. 從屬理論과 韓國의 現實

과연 종속이론은 우리의 政治·經濟現實의 分析에 그대로 적용이되는 理論인가? 종속이론의 주장자들의 말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자본주의 공업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선진공업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自力更生의 길로 모든 人民革命에 의한 社會主義 經濟體制로의 전환이 올바른 길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 필자는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종속이론 자체가 理論의 一般性 및 洗鍊性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사회경제적 상황포함)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적 특수상황은 최근들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분석 시각을 같이하는 급진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선회한 종속이론의 理論들을 가지고 分析되기에는 너무나도 決定的인 分析이라는 獨立變數가 內在해 있다는 두가지 사실에서 기인한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朴宇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선진공업국가나 다른 개발도상국 및 후진개발국과는 달리 新興工業化推進國家로서 그 구조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및 남미제국과는 다르며 꼭 從屬的이거나 過多依存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제다. 그간 社會間接 資本을 충실히 쌓아 올렸고, 貯蓄갯도 무리한 成長計劃을 세우지 않는한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主穀이 한때 수출된 적이 있으나 지금 電子, 기계, 강철, 선박, 석유화학 제품등 重化學제품이 상품형식으로, 또 플랜트 直·合作投資 형식으로 해외에 수출되기 까지 하고 있다.⁹⁶⁾ 이 중 해외건설 수출은 人口수출과 함께 우리의 比較優位이며 달러박스이기 까지 하다. 작년에는 11월 19일로 수출실적이 2백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農水產物등의 1次産業은 줄어들고 섬유에 전자·철강부문이 가세되어 工產品이 93%나 되며 1백억 70개국 이상에 우리의 상품이 수출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의 경제현실을 비추어 보전대, 朴昇교수가 언급하듯이, 종속이론이 묵시적으로 전제하는 후진국이란 1次産業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이며, 농업 및 광업이 主를 이룬다는 것인데, 수출품의 9割 以上이 工產品인 韓國의 경우에는 종속이론의 論理가 妥當性이 없다.⁹⁷⁾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貸付·外資」통제로 자본축적은 公益을 위한 전단계이며, 따라서 자본의 賣辦的인 활동은 이루어 질 수도 없다.

세째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경제성장이나 자립은 從屬理論의 권고를 따르다면 이것은 곧 人口過多·資源過少·國土分斷의 여건하에서 경제근대화는 하지 말자는 것을 事實상의 미

96) 朴宇熙, “新國際經濟秩序와 한국경제”, 月刊朝鮮, 1981. 7, p.91.

97) 朴昇, 從屬理論과 韓國經濟, 言論記考研修教材,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81), p.3.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경제와 경제관계를 단절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국제경제 환경을 有利하게 작용하도록 對內外適應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개에는 從屬論보다도 自由開放에 의한 對外指向的 成長論이 實用性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후진국의 탈중속적 방법은 국제적 집단행동이나 사회주의적 개혁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국제경제대응 전략과 제반정책을 통해 중속과 취약성과 낮은 자급자족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세계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미 1970년대에 들어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NIEO운동과 그 구체적 표현수단인 UN決議案(74년 4월에 개최된 제6차 UN특별총회는 「신국제질서에 관한 宣言과 行動計劃」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74년 12월의 29차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大國의 경제적 지배와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강조하는 국가간의 經濟倫理 憲章을 채택했다)은 현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성을 통해 南北間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케 하고 있는 것이다.⁹⁸⁾ 특히 81년 10월 22日과 23日에 카리브해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라는 이름의 南北頂上會談(The North-South Survival Summit)이 열렸다. 北측의 선진공업국 8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오스트리아·스웨덴)과 南측의 14개국(중공·인도·사우디아라비아·필리핀·방글라데시·멕시코·베네수엘라·브라질·미니·알제리·나이지리아·코트리브와르·탄자니아·유고)이 참석한 이 회담은 제3세계의 문제를 南北間의 대화와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유엔 밖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경제를 논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⁹⁾ 따라서 중속이론이 주장하는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협상비판론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VI 結 論 : 批判的 評價

지금까지 우리는 現代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참성격이 무엇인가?를 理解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 金日成主体思想, 유로코뮤니즘, 마르크스主義의 從屬理論 등의 展開過程과 基本內容을 살펴 보았다. 現代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지닌 特徵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全体主義(totalitarianism)를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全体主義는 모든 것을 그 한가지 목적에다 중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共產主義는 社會

98) Kim O Dcng "The Dependency Theory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n Development", The Korean Junsnal of Internactional Relations 1979, No. 19.

99) Newsweek, 1981. 10. 26. pp.38~45.

나 國家의 어느 일부분을 예컨대 政治나 經濟나 文化는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고 人間 自体를 바꾸어 보려는 全體的 改造, 즉 革命을 目標로 하는 政治理念이다. 또 그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社會生活과 人間活動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統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둘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그 단순한 政治理念만이 모든 眞理를 독점하고 있다는 教條的인 立場을 고집한다. 공산주의는 오직 한 가지의 참된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內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영원히 虛僞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도 여타 政治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人間이 만든 抽象的 理論体系이다. 어떻게 特定한 인간이 特定한 時代에 만든 政治理念만이 最善이자 唯一의 眞理의 集結體라고 고집할 수 있는가는 理性보다는 狂信의 次元에서만 說明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은 획일화의 억지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수공은 그 외의 모든 思想이나 理念의 무지한 말살을 만연케 하는 것이다.

세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非現實的으로 과장된 樂觀的 試語로 치장된 유토피아의 幼想에 매달리는 과도한 理想主義의 超現實的 政治理念이다. 地上의 樂園을 約束하고 그러한 天國의 到來를 자신있게 예언함으로써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大衆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시달리는 現實로부터 도피하는 思想的 麻醉를 가능케 하여 그들의 思考와 行動을 統制하는 것이다. 결국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幼想에 의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社會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에 위기를 가져다 준다.

네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그 內容을 과도하게 單純化하고, 특히 우리와 그들, 즉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友·敵의 구별을 극도로 單純化 하는 傾向이 짙다. 이런 식의 입장 모든 政治的 立場을 黑白의 差異로 규정지었고 그 社會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意見을 모두 무시하여 버리는 獨善的 立場을 충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大衆의 政治的 투쟁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現代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時代的인 必要에 따라서 여러가지 形態와 內容으로 이용되었고 적용되었다. 現代 共產이데올로기는 近代政治의 發展過程에서 가장 反民主的인 勢力의 行動指針이 되고 또 그들의 所行을 正當化하는 政治理念으로 전개되어 왔다.

現代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있어 根本이 되는 마르크시즘과 레닌主義는 모두다 時代的 產物로서 既存秩序에도 전하는 政治理念으로 형성되었다. 社會改革을 위한 抵抗意志로 형성된 政治 이데올로기는 觀心의 焦點, 改革對象, 改革方向, 推進主体 등 모든 점에서 그 時代의 社會相을 반영하게 되었다. 마르크시즘은 19세기의 初期資本主義體制에 대한 抵抗에서 그리고 레닌이즘은 19세기 末의 帝政러시아의 專制體制에 대한 抵抗에서 모두 명백한 투쟁대상과 개혁

대상체제를 가지고 나타난 이데올로기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普遍妥當한 眞理의 集結體”로서의 마르크시즘—레닌主義이데올로기의 虛構性을 지적할 수 있다. 政治이데올로기는 한 時代를 反映한 것이기 때문에 時代의 흐름에 따라 說得力을 잃게 된다는 理由에서 그러하다. 이미 1917年의 러시아 革命을 가져온 레닌主義가 마르크시즘이 矛盾과 限界를 가지고 있음은 自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시즘—레닌主義를 支配的 이데올로기로 살고 있는 最近蘇聯과 東歐內部에서 분출되는 社會變化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形態만 남고 실질적 統制力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成就된지 어언 60餘年이 지난 소련이나 혹은 共產化 이후 30餘年이 흐른 東歐諸國의 境遇 마르크스가 염원했던 平等社會로의 꿈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를 尙해 刮目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는가? 소련 및 동구에 있어 국가 경제 및 社會分野의 主要 職責에 관하여는 中央 黨指導層의 동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른바 「命名制度(Nomenklaturasystem)」에 따라 흔히 「노멘클라투라」로 속칭되는 一群의 지배계급이 탄생됐음은 질라스나 보슬렌스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련 및 동구의 경우 階級없는 社會의 꿈은 전혀 現實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1980~81년의 폴란드事態에서 勞動者들이 보여준 體制改革의 외침은 한 마디로 共產社會에 있어 平等主義 神話의 퇴색을 의미하며 그것은 共產主義 政治體制의 政治的 正統性을 위협하는 가장 深刻한 價値危機인 것이다. 무엇보다 폴란드의 自由勞組鬪爭이 함축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性格을 띠었다는 점이며 그 改革對象이 부르조아政權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던 黨과 國家官僚體制였다는 것이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이 바로 共產獨裁에 항거하며 共產社會內部에서 분출했다는 事實은 「마르크스」의 神話가 하루 아침에 무너짐을 뜻한다.

유로코뮤니즘 역시 최근 그 「早死說」이 나올 정도로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서구의 주요 공산당을 중심으로 그 理念的 形成過程을 밝아 왔고 그 뿌리가 서구의 政治文化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資本主義에 대한 危機克服을 위한 處方으로 할 때 서구정치를 붕미하는 가장 뚜렷한 흐름으로 부각되었던 유로코뮤니즘은 그 이데올로기 내용에 있어 矛盾과 표방하는 理念과 實際間의 괴리로 인해 최근 보다 불리하게 전개되는 유럽정치 무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표방하는 이념에 있어 「社會主義로의 轉移」와 「民主化의 신앙고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유로코뮤니스트 政黨들이 하나같이 黨內民主主義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얼마간의 회의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로코뮤니즘이 아직 유동적인 이념형성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현대공산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南美의 特殊狀況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從屬理論은 自國의 역사와 현실을 主体的인 視角으로 조명해서 발전문제를 생각하고 그에 관한 理論을 정립시켰다는 이른바 自我準據主義로 인해 우리의 立場에서 보면 研究方法로서는 受容價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實踐原理로서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보면 수용가치는 없다고 본다. 從屬의 개념에는 이미 適實性에 있어 불완전한 理念으로 판정이난 마르크스시즘—레닌主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脫從屬을 위한 方法으로 과격한 手段과 暴力的인 社會主義 革命을 주장하고 있으며 南美의 특수상황에 토대하고 있다. 따라서 從屬理論이 가지는 論理的—戰略上的 問題點과 適實性의 결여로 인해 우리의 立場에서는 마르크스主義의 從屬理論이야말로 개인적 삶을 왜곡시키고 사회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에 위기를 가져다 주며 民主福祉國家로서의 統一과업 달성에 하등의 기여를 할 수 없는 逆機能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金日成主体思想은 그 형성과정에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달리 소련점령군이 만들어 놓은 共產體制를 승계받으면서 그 體制를 正當化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명백한 鬭爭對象과 改革對象體制, 推進主体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抵抗意志를 事後에 만들기 위해 새로운 敵들을 만들어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시즘—레닌主義를 승계한 金日成主体思想은 처음부터 敵을 밖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으며 金日成支配體制의 正當化의 편의를 위해 南韓과 美國을 階級的 敵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階級鬭爭 이데올로기의 共產主義가 되기 위해서 金日成主体 思想에서는 「南朝鮮革命」은 스스로의 存立을 위한 不可缺한 條件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一人專制政治와 一人支配體制를 正當化하고 合理化하기 위해 自己存立의 論理로 내세운 것이 金日成主体思想이라고 보면 된다.

集團主義와 絕對主義를 中核으로 하는 金日成主体思想은 支配的 이데올로기로 북한 사회의 모든 領域을 통제한다. 북한 국민 모두의 日常生活의 行爲準則을 결정해 주는 道德規範이고, 行爲의 善惡을 가려주는 宗教로 金日成主体思想은 自由와 民主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全体主義 이데올로기로서의 典型이다.

이데올로기는 虛偽意識이라고 마르크스는 定義하였으나, 虛偽意識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具體的이고 分明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시즘—레닌主義가 근간이 되는 現代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의 歷史의 아이러니를 보고 있는 셈이다.

— Summary —

A Study on Modern Marxian Revolutionary Ideologies

Chang-young Hann

Seong-joon Koh

Chung-seok Koh

When we approach national unification, we have to start discussing on the Communist Ideology of the North Korea. In a totalitarian society like north Korea, political ideology has become the backbone of the entire social system. I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political development, the uniform rule that regulates the whole political activities, the pace setter that covers all aspects of social life of the entire people, and the solemn religion that provides with moral criteria of evaluating everyone's mental activities.

Political ideology is a historical product. It reflects prevailing ideals of the people living in an era, If a group of people share common frustration in a particular social system, they begin to envisage a dream of an ideal society where such frustration is presumed not to exist. In such circumstances, when someone provides logical nexus linking the current unsatisfactory state and the desirable logical nexus linking the current unsatisfactory state and the desirable future utopia, and suggest also an action program for the social changes necessary to get to the ideal state, we call it a birth of an ideology, we can say then that a political ideology is the will of the people to resist against the contemporary political or social system.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a political ideology directly reflects both the static and dynamic system-state of a society in a particular era.

How we pr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Marxian Revolutionary Ideologies? They are transformed based on the traditional Marxism-Leninism according to specific circumstances. For example, Euro-communism, the thought of Kim Il-song, Marxist dependence theory are what we call Modern Marxian Revolutionary Ideologies.

Nowaday in Communist Societies, the dream of classless society is not practical. Rather, as Milovan Djilas said, new class came in view. Poland in the past two year and a half has taught the world a lesson that is both stark and undeniable: as a means of organizing an economy and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a citizenry, Communism is a failure. These mean that Marx's theory, in soviet practice, is collapsed. Euro-communism is drifted about recently. Marxist dependence theory has lost support because of radical and unrealistic points. The Thought of Kim Il-Song is no other than a tool for indoctrination of the people to accept Kim's one-man dictatorship.

What we learn above is that modern Marxian revolutionary ideologies are only false-consciousness.